

청년생활

195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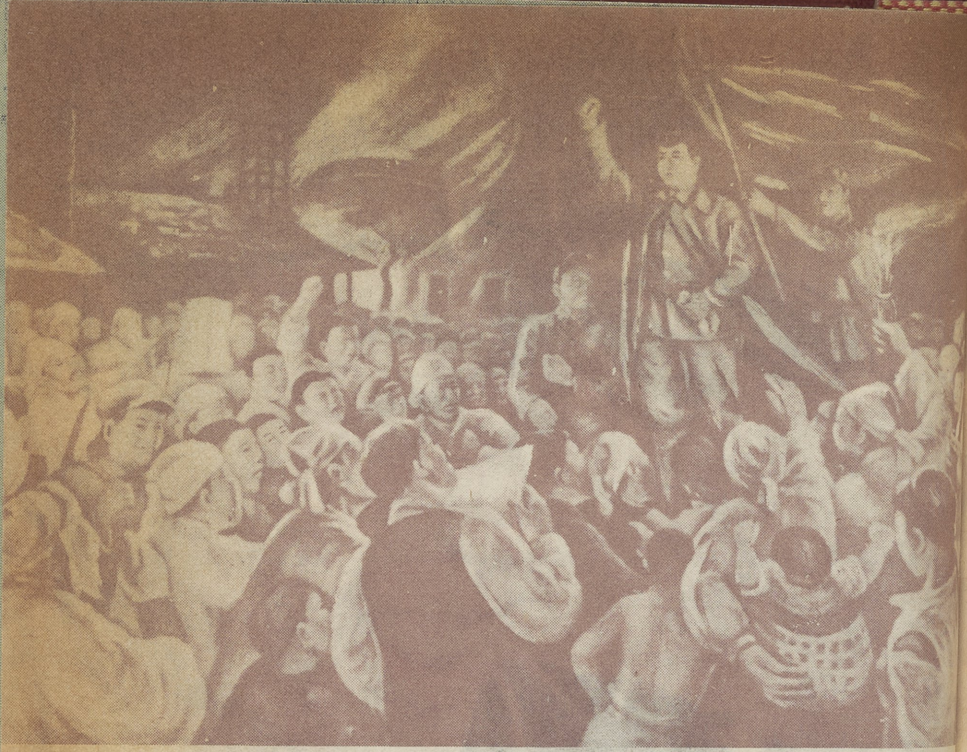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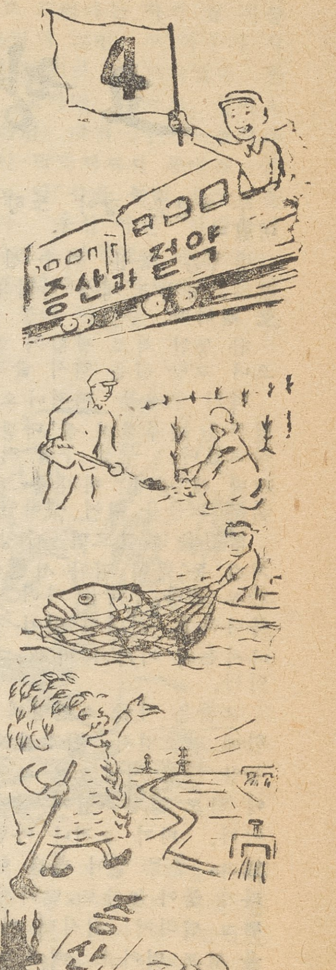


그림 《보천보의 불'길》　　　　(정 관철 작)

청년생활 1957.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차　　　　례





고향길

석인해

두 청년은 같이 고향 정거장에 내렸다.

용국은 농산 기수 검정 시험을 쳤고, 경식은 세상 박람에서 돌아오는 길이다.

한 동안 서로 생활의 방향은 달랐으나 고향'길은 역시 즐거웠다.

역의 구내를 빠져나오면 곧 허허벌판을 가루질러 살'대같이 뻗은 신작로였다. 누엿 누엿 저물어 가는 저녁 해'발이 대지를 그슬릴 듯이 붉은 노을을 쥐여 뿌리였다.

벌판을 꿰질르면 수양 버들이 우거진 동'둑이 막아 서면서 달래강을 안고 돈다. 둑을 따라 내려 가다가 쪽다리를 건너면 이어 강안 마을이 나서는데 여기가 바로 그들의 고향이다.

그들은 지금 오랜만에 고향'길을 함께 걸으면서 한결같이 중학 6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쏘대던 그 기억이 하도 영절스럽게 살아 오르던 것이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쳐도 걸었고, 꽁꽁 얼어 붙은 한길을 눈보라가 묻어 놓아도 달리지 않았던가! 뛰고 달리며 시시덕 거리고 가닥질을 쳐도 멋이요, 때로는 욱박지르고 앙당 싸우기도 했기로 역시 즐거운 추억이 아닐 수 없었다.

—용국이! 원산에선 농대 다니는 재호랑 만났댔어. 엉뚱해졌데. 자식 뽐낼만두 허지. 젠장, 남다 다니는 대학을 글쎄…

경식은 터드럭 터드럭 다 해진 구두를 끌면서 모자 차양을 눈'두덩이 가리게 푹 눌러 쓰며 제풀에 한숨이 진다.

—경식은 지금도 대학에 미련을 가지는가…?

용국은 조개턱을 들어 미소를 띠우고 경식을 결눈질해 가며 묻는다.

—이마적 미련이랄 건 없겠지, 해두 겨누었다 빗맞았으니 섭섭하달 밖에…… 그래 화'김에 난질 간다구 집을 뛰쳐 나가지구 일년을 떠돌았네만 별건 없어…… 허허—

—경식이 넌 그게 탈이야. 저마다가 대학만 따라다닌다고, 우리 사회가 잘 되는건 아닐게야. 난 원체 대학에 가겠단 마음부터 먹지 않았네만, 우리가 할 일은 정작 딴데 있다고 보네—

—음, 쓴 배도 맞들일 탓이라고…?

—어째 그게 쓴 배겠나, 사회주의로 가는 우리가 농촌의 발전을 헐후하게 볼 수 있겠는가? 사리란 근본부터 따져야해. 농촌은 우리 힘으로 건설해야 하네. 어떻게 저마다가 대학만 꿈꾸겠나. 농촌 경리를 해가면서도 우리에게는 기술로나 지식으로나 얼마던지 발전할 길이 열려 있단 말일세. 알겠나?—

—딴은 그렇기도 해. 자넨 단 일년 사이에 기수 자격을 얻었다니 놀랍지… 헌데 이 꼴이 된 나로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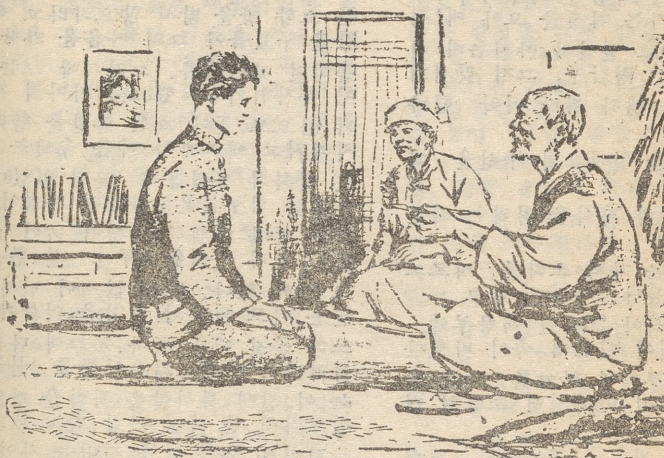
—그따위 비양거리는 소릴랑 그만두게. 않을 말로 마음을 모질게 먹고 대들면 못해 낼 일이 어디 있겠나. 6년 동안 이 길을 걸으면서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꿈을 그렸던가! 그건 정녕 대학 공부만은 아니였지…

—…………—

경식은 그만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어졌다. 그에게는 보고 듣는게 새로웠던 것이다. 불과 일년인데 그들의 생활에는 얼마나 많은 변천을 가져왔던가! 경식은 진작 놀라운 눈알을 굴리면서도 용국에게 그런 내색을 보이지 않았고, 용국이는 저대로 협동화된 강안 마을의 변모에 대하여 구태여 설명하지 않았다.

길을 끼고 좌우로 논 밭은 한창 누르러 일매지게 황금 빛으로 물들었으니 망정이지, 씨 뿌리기 전에 이 벌판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던가! 하늘만 쳐다 보게 마련이던 천수답도 해마다 허실로 부쳐오던 다랑 논도 개답이 됐으며, 수해 방지를 위한 축동, 양수장의 설치,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다리도 새로 놓았다. 흉풍을 운수에만 맡기던 일은 인제 옛말이다.

동구 밖 가름 길에서 둘은 헤여졌다. 경식은 새삼스럽게 가슴이 뭉쿨해 지면서 발이 무거웠다. 맞은 편



언덕 넘어로 드러나는 자기 집 지붕을 바라 보자니 그만 코'마루가 시큰해지면서 감회가 새로워졌다. 뜻을 이루지 못하면 죽기로 돌아오지 않으리라던 내가…?——경식은 그만 가슴이 막막해져서 동네로 들어서다 말고 발'길을 돌려 산구비를 끼고 돌았다. 우선 마을 사람들의 눈과 부딪치기가 거북했기 때문이다.

경식은 길 옆에 선 바위에 기대여 넋 없이 한 동안 마을을 내려다 보았다. 황혼에 나붓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일'손을 놓치 않은채 사뭇 분주하게 움직인다. 해가 떨어졌건만 일에 골몰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경식은 하염없이 굽어 보는 것이였다. 땅거미가 질어서야 경식은 괴나라 보'짐을 둘러메고 그리운 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개가 으르대는 통에 어머니가 부엌에서 쌀을 일다가 얼결에 이남박을 내던지고 밖으로 뛰여 나왔다.

—경식이로구나, 이 녀석아 어델

갔다가 인제야…

하고 목이 미여 웨치자 방문이 열리며 동생들이 내달렸다. 경식은 아버지에게 넘죽 절을 하고 나서 동생들에게 끌려서 방으로 들어 갔다. 식구들은 좋으며 말며 여부가 없었다.

용국이가 귀틈을 하였기 때문에 한 무렵에 초, 고중을 나온 자기 동갑들인 마을 청년들이 쓰러모여 떠들석하고 고아대던 때는 어우렁 더우렁 지냈으나 그들이 돌아가고 집안 식구만이 남자 경식은 더 없이 거북해지던 것이다.

—그래 세상 박람이 어떻더냐…?

하고 아버지는 격정을 모아 대'통을 문턱에 대고 떨면서 따지는데 어머니는—에구 령감두, 그저 맞서기가 무섭구려, 괜히 쥐락 펴락 헌다니까…

하며 자식을 휩싸노라 수선을 떠는데

—닥쳐, 저게 자식을 버리는 화근이야—

하고 아버지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 자리를 일어섰다. 나가다 말고

—사내 자식이 20이면 대장부야. 피'짚에도 뱀이 있는데 속이 비였단 말이다. 한 무리에 학교를 나온 용국이, 춘희서껀 이마적엔 조합의 기둥이 됐어…

빽 소리를 지르고 돌아선다. 경식에게는 두 틈에 끼여 조바심이 되여 있는 어머니가 더 송구스러웠다.

경식은 그러다릴 수 없는 뉘우침에 잠겨 드는채 실로 오랜만에 포근한 자리 우에 몸을 눕히니 제풀에 눈이 감겼다. 잠'결에도 잊지 못할 그 어지러운 지난 날의 생활의 토막 토막이 주마등 같이 얼른거리여 더욱 얼굴을 붉히게 하였다. 신의주에서 평양으로 떠돌아 다니면서 마치도 꽃을 찾아 나르는 나비처럼 혹여나 힘들이지 않고 성공하여 잘 살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을까 싶어 친척네 집들을 문방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고중 선배들에게 시끄럽게 매달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 어느 것이고 경식의 뜻대로 될 리는 없었고, 그런 생각이 헛됨을 증시해 주었다. 경식은 그러한 뜨내기 생활에서 하나씩 둘씩 뉘우침이 생겼고 고향을 생각하게도 되였으며, 부모와 동생들이 그립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 구석에 가장 그를 괴롭히던 사실은 춘희를 대할 면목이 없음이였다. 누구도 모르게 탈가(脫家)하던 때의 그 쓸모없는 자격지심으로 하여, 성공하기 전에는 고향 땅을 밟지 않으리라고 속다짐을 두었음이 그의 마음을 가장 괴롭히던 것이였다. 그러기에 그는 많이 바자위기도 했으나 이마적 자기가 집으로 돌아 오는 사실을 합리화시키려고 애쓰게쯤 마음 속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음에 틀림 없었다.

집안 식구들은 나갔던 자식이 돌아온 것만 다행해서 행여 긁어 부스럼이 될가 두려워 두고 볼 뿐 별로 말이 없다. 말이 없으니 만치 그들은 서로 피차의 심정을 더듬어 보노라 무진 애를 쓴다. 그래 다심한 어머니는 마을 젊은이들을 붙들고는 이 생매 새끼갈은 자식을 단단히 잡도리해 줄 것을 다짐 받고 했다.

경식은 하루 이틀 지내는 사이 손님 기분도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을 대하기가 거북하던 것이나 인제 시스러움도 가시여 졌고, 집에서는 주인임을 느끼게 되였다. 따라 아무 일에건 손을 대여 봄으로써 자신을 시험해 보고도 싶었다.

경식은 우선 제 집 살림을 거두는 데로부터 출발하였다. 아침 일찌기 일어나 뜰도 쓸어 놓고 풀을 베다가 돼지 우리에 깃으로 넣어도 주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조합 일에 나가고 동생들은 학교에 가고해서 빈 집을 지키고 앉았다가 무료해지고 보면, 지게를 지고 뒤'산으로 올라

땔 나무를 긁어도 오고, 어머니를 위해 물'지게를 져서 물'독에 풍풍하니 물을 채워도 놓는다.

그리고 나서도 아직 시간이 남았다. 가을에는 꺽뚜짝(나막신)도 한 뭇이랬는데 오륙이 멀쩡한 것이 바쁜 일에 어느 한 모라도 막아 주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가책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던 터에 하루 아침에는 춘희가 쟁기까지 갖추어 들고 와서 같이 조가을을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들로 나갈 것을 꼬드기기 때문에 따라 나섰다. 경식은 농촌 태생이건만 손에 낫을 쥐고 곡식 가을을 해보기는 처음이다. 더구나 장정 일'군 속에 끼여 한 사람 몫을 감당해 내야하는 그러한 자리에 대하여는 깊은 생각 없이 뛰여 들었다. 게다가 반(班) 일'군이란게 모두 한 무리에 초, 고중을 나온 청년들이고 보니 어쩌면 그들에게 떨어지랴고, 얕잡아 보고 대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 경식은 부르걷고 덤비였다. 아침 반나절은 별로 고통을 모르고 청년들이 해내는 그 대중으로 견디여 냈다. 그러나 오후 작업에서는 경식은 이미 그들의 대거리가 되지 않았다. 허리는 끊어내고, 오금은 쑤시고, 충혈이 된 얼굴은 이슥이슥 부어 오르는가 싶었고, 사지가 나른해져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다른 청년들은 일에 들어쳐서는 경식이 따위는 문제가 될게 없어, 헝그럽게 작업하면서도 웃음소리가 그칠 사이 없었고, 노래는 그냥 들로 퍼져 갔다. 그러면서도 뒤 떨어지는 경식의 몫을 덜어주고 있지 않는가!

경식은 이를 악물고 하루 일을 치루어 냈다. 일'손을 떼고 보니 이미 어두어진 때였다. 경식은 지친 다리를 이끌고 춘희를 따라 송동 넘어 집을 향하여 걸었다. 이즈러진 가을 장현(上弦)달이 솔 사이로 푸른 빛을 드리우고 귀뚜라미가 돌돌거리는 풀'잎에 맺힌 이슬 방울이 은'빛으로 반짝인다.

—참고 이겨내야 해요, 그 고비만 넘기면 처음 료량 보다는 수월해 지는거야요…

춘희는 경식이를 애끼는 눈으로 더듬으며 말하였다.

그러나 경식이는 굳게 다문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우리 마을은 확실히 달라지고 있어요. 면청원들 마다가 손싸게 맡겨진 사업을 리행하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각자 발전을 위해 밤을 도와 공부하고 연구해 가거던요. 농촌 경리도 인제 과학과 기술이 아니고는 발전시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지요. 그래 야간 농업 기술 강습소를 개설했고 서로 승벽으로 농산, 축산, 잠업 관리, 협동 경리의 기본에 대한 기술 습득에 열중하고 있어요. 그래 유능한 기술 지도원까지 배치됐거던요. 이러한 계몽 사업과 지식은 실지 살림과 작업에 적용되고 있으니까요.—

경식은 듣고만 있는지 딴 궁리에 골몰한지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춘희는 그래도 경식이를 설복시키노라 애를 쓰고 있음이 분명했다.

—난 천하 사람이 떠든대도 경식 동무를 믿겠어요. 그건 경식 동무를 누구 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예요. 어려운 일이라면 얼마던지 도와 드릴 생각이니까요. 어디 함께 농촌에 뜻을 부치고 일해 가게 하세요—

하고 춘희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기에,

—춘희 동무 고맙소. 지난 날을 생각하면 미안하기 짝이 없구려. 용서하오. 한가지 춘희 동무를 대할 면목이 없었소. 제깐에는 쓸모있는 인물이 돼가지고 춘희 동무 앞에 나타난다고 뻐겠다면 웃을 것이지만 솔직한 내 심정이였소. 인제 빈손치고 돌아와 보니 고향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구려. 우선 춘희 동무를 보기가 부끄러웠소. 모두 떠나간 정거장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아서…

하고 경식은 망서리던 입을 열였다.

—그렇게 고깝게 생각할 건 무어겠어요. 지낸 날은 지내간 것으로 치고, 앞날을 계획해야지요. 늦기는 무에가 늦었으며 또 어째 혼자만이 차를 놓치고 대합실에 남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그건 생각부터가 시대정신이 아니예요. 더구나 동무의 길엔 반려(伴侶)가 있다고 믿어요—

어둠속에서 춘희는 얼굴을 붉혔다.

—철이 없어 그랬지 국가와 고향은 내게 과분한 혜택을 입혔었소. 그런데도 오늘 작업에서 나는 자신이 너무도 약함을 다시금 느꼈다면 동무는 어찌 생각할른지 모르겠으나 나는 정말 괴로웠소.—

—약한 소리입니다. 이겨내야 해요. 행복은 딴데 있는게 아니라 이 로력 투쟁 속에서 찾아야 할게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경식 동무!

—그래야 옳겠지요, 물론…

그들은 가름 길에 와 가지고 헤여졌다. 춘희는 마음이 가벼워 집에 걸음이 싸짐을 느끼였다.

그날밤 경식은 저녁을 뜨다 말고 자리에 쓰러졌다. 경식은 저도 모르게 앓는 소리를 내가면서 한 밤을 매대기를 치며 신음했다.

그렇게 곯아 떨어져 우울해 지내던 어느 날 아침, 용국이가 렵총을 어깨에 걸채 찾아와서 작잠(作蚕)이 오를 무렵이여서 손이 달리니 좀 거들어 달라고 청했다.

경식은 속이 클클하던 참이요 또 조합의 수익치고도 첫째로 곱는 작잠이고 하니 자연 마음이 끌리기도 했지만 우선 산이 그리워서라도 따라 나설 밖에 없었다.

작잠장으로 되여 있는 수리봉으로 추어 오르며 용국이는 강안 마을의 앞 날에 대하여 곰살갑게 이야기해가며 경식이를 구실려댔다. 작잠에서만도 세월만 좋으면 춘 추 두차례 사육에서 50만원 수입쯤은 떼여 놓은 당상이요, 그 밖에 면양은 아직 순모용(純毛用)종자로 바꾸어 놓치 못한 관계로 큰 수익은 없는 형편이지만, 현재 양돈 부문에서는 착실한 수익을 보고 있으며, 앞으로는 과수원과 양봉까지도 계획하는데, 산을 지고 위치한 조건하에서 이러한 부업도 륭성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달



바위재에 올라 서서 발 밑에 깔리는 릉선을 따라 가닥나무, 보습나무, 최리나무, 비단 버들 밭이 아득하니 바라보이는 맞은편 산'발까지 융을 깐듯이 뒤덮였고, 아침 해'발에 그것은 푸른 빛이 아니라 누런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보게! 나무란 나무가 황금 빛이지! 그게 바로 작잠의 빛이라네, 아침 이슬을 받아 먹고 있어…

하며 경식이를 돌아 보는데 인기척에 놀랐던지 산굽이 섶발에서《과악! 과악》소리를 지르며 까마귀 한 마리가 나뜬다.

—이 놈의 까마귀가, 어디서——

하고 용국은 어느 사이에 사냥총을 어깨에서 벗기는가 싶더니《땅—》하는 총 소리가 메아리 되여 퍼지는데 날'짐승은 허공에서 깃을 너울거리며 땅으로 곤두박질을 친다.

—작잠은 저 놈이 탕을쳐 놓거던, 매일 평균 수백 마리씩 축을 내지, 까마귀 뿐인가, 쥐, 메'새 허다못해 개구리까지가 달라붙으니까, 그래 우린 총을 마련했어—

하는 용국의 말을 듣노라니 섶'밭속에서—경식 동무! 용국 동무!—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를 더듬으니 거기엔 춘희가 서서 꺼먼 까마귀 깃을 치껴든채 손을 헤치고 있지 않는가!

산 비탈을 내리 달리는 용국의 뒤를 따라 경식이도 내 달렸다. 달리며 보니 눈'길이 닿는데는 섶이요 섶나무에는 가지가 휘게 섶누예가 매달렸는데, 소내기 오는 소리를 내가며 섶'잎을 갉아 먹노라 수선스러웠다.

—경식 동무! 이 벌레가 외화를 획득 한다면 놀랄지 몰라요, 적어도 이 섶'발에서만도 30만원은 틀림 없지요—

춘희는 잎 없는 가지에 올라 헤매는 누예를 두 손'가락으로 맞집어 들어다 다른 잎에 옮겨 주면서 말하는데, 경식은 그 뼘이 넘는 누런 털에 싸인 벌레가 징그럽기도 하여 몸서리를 치면서도

—아무턴 놀랍소. 이런 큰 일 그릇을 마련하노라 고생들 했을가 보오—

경식이는 진정 감격스런 말투였다.

—생활은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어려운 것일세, 제 길에 들어서 호흡이 맞으면 헐하구, 어떤 의무감에 사로잡혀 내키지 않는 길을 억척으로 걷고 보면 고통스러운 것이지, 요는 정신 문제니까……

용국은 그들의 작업장인 산막(山幕)을 향해 언덕을 추어 올랐다.

—어때요. 고향은 역시 아름답지요? 그리구 번영하구 있지요?

—아름답기만 하던 고향은 인제 훌륭한 고장으루 변하고 있소. 나도 무슨 일이건 해보구 싶소. 춘희 동무와 함께라면 무슨 일이고 뛰여들겠소. ——

—좋아요. 일합시다. 그리구 아름다운 미래를 추구합시다—

언덕에 올라선 용국이가 소리치는 바람에 놀래인 그들은 용국이가 뻗치고 선 그 언덕을 향하여 달음질쳤다.

세 청년은 언덕 우에 가즈런히 서서 발 밑에 깔리는 강안 마을을 굽어보고 있다. 보는 눈은 다를지 모르나 그들의 마음은 한 길로 달리고 있음에 틀림 없었다.

그 가운데서도 경식의 마음은 다시금 새로워지던 것이다. 마을을 끼고 도는 강을 건너면 벌판이요, 벌판을 꿰질러서는 살'대같은 신작로가 뻗었다. 그 길은 마음 속에 그리던 고향'길만이 아니요, 인제 그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생활의 길이였다.

(1957. 3. 16.)

참된 민주주의와 거짓 민주주의

오늘 세계에는 두가지의 민주주의가 있다. 그 하나는 거짓 민주주의에 속하는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부르죠아 민주주의이다.

자본가들은 자기들이 봉건들과 투쟁할 때는 인민을 자기 편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민주주의》를 내 걸었다. 그들은 헌법을 제정하며 보통 선거제 및 형식적인 자유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것들은 어데까지나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수단이였다.

봉건을 타도하고 정권을 잡은 자본가들은 근로 인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유린하였다. 부르죠아 민주주의는 한줌도 못되는 독점 자본가와 지주들에게만 속하는《민주주의》이다. 다른 하나는 참된 민주주의에 속하는 사회주의 국가와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실시하고있는 민주주의인데 이 민주주의는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전체 근로 인민들에게 속하는 민주주의이다. 왜냐 하면 이 나라들에서의 국가의 주인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 인민이기 때문이다.

이 두개 형태의 민주주의는 서로 본질적으로 다르다.

압박하는 사람과 압박 받는 사람, 착취하는 사람과 착취 받는 사람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다. 또 세상에는 계급을 초월한 민주주의란 없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그의 앞잡이들은 마치나 이러한 민주주의가 있다는 듯이 떠벌림으로써 자기들의 비민주주의를 감춰 보려고 한다. 많은 실례를 들것도 없이 미국에서의 선거법 하나만 들고 보아도 알 수 있다. 미국의 선거법에 의하면 일정한 재산, 일정한 거주 기간, 일정한 문화 정도가 있어야 선거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여있다. 미국에서는 이 선거법에 의하여 수백만의 로동자들이 선거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흑인이 가장 많은 남 미주에서는 흑인의 50~75%가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또 미국식 《민주주의》가 철저히 침투된 남조선을 보더라도 절대 다수의 근로 인민들이 여러가지 구실로 선거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소위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였다는 《국회 의원》들 속에는 로동자, 농민의 대표란 단 한명도 없다. 오늘 미국이나 기타 자본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찾는것은 산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

오직 참된 민주주의는 착취가 없고 압박이 없는 근로 인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사회에만 있을 수 있다. 오늘 쏘련을 비롯한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인류 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본 적이 없는 가장 참된 민주주의인 것이다. 왜냐 하면 이 나라들에서는 인간에 의한 착취가 근절되였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 인민들이 국가의 주인으로 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쏘련을 비롯한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의 참된 민주주의에 대하여 가진 악담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이들은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가 마치도 민주주의와 모순되며 인민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억제하는 듯이 떠버리고 있다. 과연 그런가? 아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 제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제정 실시되는 모든 법령들은 인민들의 광범한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기초 우에서 민주주의적으로 토의 결정하며 이것을 중앙이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례를 들어 보자!

1957년도 인민 경제 계획은 우리 나라 전체 인민들이 실시하여야 할 한개 중요한 과업이다. 그런데 이 1957년도 인민 경제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였는가. 금년 초에 공화국 각지 공장, 탄광, 농촌들에서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천을 위한 광범한 집회들을 가지였다.

이 집회에는 공화국 전체 근로 인민들이 참가하였는데 회의에서는 인민 경제 계획 실천을 위한 많은 문제들이 토의되였으며 창발적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근로자들의 이러한 제의들을 종합하여 공화국 정부는 1957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작성하였던 것이다.

이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는 인민들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억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욱 더 발양시킨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런데 일부 동무들 가운데는 《자유》인데 왜 지각이나 결근을 가지고 시비하는가? 《민주주의》인데 상부의 지시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집행 안하면 그만이 아닌가? 고 말하는 동무들이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아주 잘못 해석하고 하는 말이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각하고 결근한다면, 또 상부의 지시가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 하여 그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위업이 어떻게 실현되겠는가?

사회주의를 성과있게 건설하여 나아가자면 중앙의 통일적인 지도가 있어야 한다.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공업과 농업간 균형이 보장되여야 하며 공업 부문에서도 중공업과 경공업 부문간에 일정한 비률이 보장되여야 한다. 례를 들면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중공업과 경공업을 똑 같이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각 도가 즉 자강도는 자강도대로 함남도는 함남도대로 서로 제 마음대로 한다면 이와 같은 균형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는가! 또 다른 례로 우리 나라에는 공장이 많은데 매개 공장이 제 마음대로 생산한다면 어떤 공장에서는 필요 이상 많은 물건을 만들 것이고 어떤 공장에서는 인민들에게 절실히 필요되는 물건을 만들지 못함으로써 인민생활에 손해와 지장을 줄 것이 아닌가!

그러니 우리에게는 인민의 의사를 성과 있게 실현할 수 있는 중앙의 통일적인 지도가 필요하며 따라서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은 중앙 집권제와 민주주의가 옳게 결합될 때만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앙 집권제만 강조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하거나 극단한 민주주의만을 강조하는 현상은 모두 다 옳지 않다. 실정을 고려함이 없이 내려 먹이는 현상, 개인 독단, 비판을 억제하거나 비판을 복쑤하는 현상은 모두 다 민주주의 원칙에서 위반되는 행동이다. 청년들은 이와 같은 현상과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동시에 청년들은 조직과 집단 속에서 개인은 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는 중앙 집권제 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

원쑤들은 쏘련을 비롯한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인민 민주주의 독재는 어느한 당의 독재와 개인의 독재라고 하면서 마치 민주주의가 없는 듯이 선전하고 있다. 이것은 아주 엉터리 없는 수작이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그것이 로동 계급의 독재이지 결코 어느한 당이나 개인의 독재는 아닌 것이다. 왜 그런가?물론 우리들은 독재를 실시한다. 여기에 대해서 김 일성 원수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인민 정권은 반동적 친일파 및 기타 제국주의 주구 민족 반역자들과 또한 제국주의 세력을 부식하려는 지주 및 예속 자본가들에게 한하여서는 독재를 실시하며 인민 자체에 한하여서는 민주 제도를 실시한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는 인민 정권은 인민에 의하여 선거되였으며 인민의 리익과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민 정권이 반동 분자들에 대하여 실시하는 독재는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곧 우리 전체 인민들의 독재인 것이다.

그러면 왜 반동 분자들에게 독재를 실시하는가? 오늘 타도된 착취 계급들은 틈만 있으면 우리의 고귀한 전취물을 전복하고 다시 지주와 자본가의 정권을 회복하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 만약 이들의 발악을 가만히 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웽그리야에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웽그리야에서는 반당적 종파가 제때에 제거되지 않았다. 그런 관계로 원쑤들이 국내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으며 제국주의자들과 손을 잡을 수 있었다. 이런 기회를 타서 국내 반동 분자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성원 속에 폭동을 일으켜 한때 사회주의 웽그리야는 위험한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그후 반혁명 세력에 대한 웽그리야 로농 혁명 정부의 단호한 진압을 통하여 사회주의 전취물은 고수되였다. 만약 웽그리야에서 반혁명이 승리하였다면 어떻게 되였겠는가? 지주, 자본가의 정권은 세워졌을 것이고 근로 인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완전히 말살되였을 것이 아닌가? 그런즉 인민 민주주의 독재는 민주주의를 억제하는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원쑤의 침해로 부터수호하며 그를 발전시키는 유력한 도구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전취한 성과를 수호하며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할려면 우리의 혁명의 원쑤들인 지주, 친일파, 예속 자본가 등 반동 분자들에게 숨쉴 틈을 주지 말고 더욱 더 강력한 타격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참된 민주주의라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보다 더 굳건히 하고 발전시킬려면 인민경제를 발전시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가 전취한 민주주의적 성과를 고수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에 더욱 궐기하여야 한다.

레닌에 대한 회상

7월달에

아. 끄노노브

레닌이 로씨야로 돌아온지 벌써 석달이 지났다. 략탈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좀체로 끝장이 날것 같지 않았다.

부르죠아 림시 정부는 말로는 평화 정책을 선언하였으나 실지로는 인민을 기만하였다. 로동자, 농민, 병사들의 격분은 점점 더 커갔다.

7월달이 되였다. 무시무시한 날들이 다가 왔다. 7월3일 뻬뜨로그라드에서는 로동자와 병사들의 시위가 진행되였는데 이 시위는 《모든 정권을 쏘베트로!》라는 구호밑에 진행되였다.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였다. 그러나 이 시위는 격파되고 거기에서는 로동자와 병사들의 피가 흘렀다.

볼쉐위크의 신문은 정간 당하고 놈들은 레닌을 체포할데 대한 계교를 꾸미고 있었다. 그러나 볼쉐위크들은 제때에 적들의 이러한 계교를 알아차렸다.

당은 울라지미르 일리이츠에게 쓰웨르들로브 동지를 파견하였다.

당시 울라지미르 일리이츠는 뻬뜨로그라드 시로까야 거리에서 나제즈다 끈쓰딴찌노브나와 그리고 누이들인 마리야 일리니쉬나, 안나 일리니쉬나들과 같이 살고 있었다.

쓰웨르들로브가 사택의 문턱을 넘어 서자마자 모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곧 알아차릴수가 있었다. 울라지미르 일리이츠에 대한 체포 명령은 아직 나리지 않았으나 그것은 1분 1초 시간을 다투고 있었다.

시간을 놓쳐서는 안된다!

바로 이 때 쓰웨르들로브는 자기가 입었던 비옷을 벗어서 울라지미르 일리이츠에게 입혔다. 그것은 레닌을 쉽사리 알아 보지 못하게 가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레닌과 쓰웨르들로브는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그 이튿날 레닌의 사택으로 큰 트럭이 벅작고아대며 달려 들었다. 트럭엔 백파군들의 장교와 사관 학교 후보생들이 가득 타고 있었다.

그들은 트럭에서 내리자 레닌의 사택 현관으로 뛰여 들더니 힘껏 문을 뚜드려 댔다. 나제즈다 끈쓰딴찌노브나는 문을 열어 주었다.

—레닌이 어디 있어? 하고 장교가 소리를 쳤다.

—그이는 여기 안계신데요—하고 나제즈다 끈쓰딴찌노브나가 대답하였다.

그러자 장교놈들은 수색을 시작했다. 이곳저곳 막 들추어 보고 장들과 궤속까지 파고들었다. 심지어는 침대밑까지 기여 들어가 보았다.

다음은 현관으로 나갔다. 거기에는 한구석에 버들 행리짝이 놓여 있었다. 장교놈은 군도를 빼여 그것을 콱 찔러 보았다.

현관에서는 부엌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져 있었다. 부엌에는 젊은 식모 안누쉬까가 걸상에 걸쳐 앉아 있었다.

안누쉬까는 화가 나서 장교놈을 쏘아보며

—어디 난로 속을 보십시요. 거기 누가 앉아 있을지도 모르니까요—하고 말했다.

—입을 닥쳐!—하고 그는 성이 나서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부엌에서 찾아내지 못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거기서 그는 책상 설합을 열어 재끼고 레닌에게 온 편지들을 끄집어냈다.

한 편지에는 전선에 있는 병사들이 레닌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렇게 씌여져 있었다.

《동지여 레닌 동지여! 우리들, 병사들은 모두 한사람처럼 당신과 같이 어데나 갈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믿어 주십시요…》

다른 편지는 먼 시골서 온 편지인데 이렇게 씌여져 있었다.

《우리 농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인 레닌만이 로씨야를 구원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만일 우리들이 모두 당신을 지지하고 그의 법칙대로 한다면…》

남은 편지들은 모두 이런 내용의 것이였다. 거기에는 아무런 비밀도 없었다. 레닌에 대한 인민들의 사랑은 그 누구에게도 비밀이 아니였다.

장교놈은 성이 나서 편지들을 책상 우에 집어 던졌다.

그리고 그는 사택 안에 있는 나제즈다 끈쓰딴찌노브나와 엠. 떼. 엘리자로브 그리고 식모를 체포하라고 호령했다. 이윽하여 그들은 그 어떤 도배지가 다 떨어진 험한 방 안으로 끌려 갔다.

거기는 백파군의 후보생들이 군도를 빼들고 뛰여 들어 왔다.

—레닌이 어디 있어?

놈들이 울라지미르 일리이츠를 학살하려고 했다는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한 놈들은 몹시 성이 났다. 나제즈다 끈쓰딴찌노브나를 오랜시간 심문하였으나 그로부터 아무런 것도 알아내지 못하자 놈들은 나제즈다를 놓아 주었다.

한편 울라지미르 일리이츠는 이때 이미 다른 사택에 가 있었다.

밤이 되자 림시 정부는 명령을 내리였다. 아침 새벽부터 집집 문'간마다에 보초를 세워 잘 아는 늙은이 외에는 아무도 거리로 내보내지 말라는 것이였다. 이런 방법으로 레닌을 그 어데던지 멈춰 두려고 했던 것

이다.

그날 밤 울라지미르 일리이츠는 어떤 로동자네 집에서 하루' 밤을 새웠다. 레닌은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으로 휜 앞치마를 두른 문직이들이 서 있는 것을보자 그들이 왜 문'간에 서 있는가를 인차 알아 차렸다.

울라지미르 일리이츠는 가만히 옷을 입고 손에는 우산을 들고 뜰안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천천히 곧바로 문직이들이 서 있는 데로 걸어 갔다.

놈들은 그를 바라 보았다. 이 사람은 새로 보는 사람이니까 그를 거리로 내보내서는 안될 것이였다. 그러나 레닌은 아주 뻐젓이 걸어 갔다. 그래서 문직이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이 사람에게는 두려운 것이 아무 것도 없는 모양이다. 그는 아무데로도 덤비는 기색이 없지 않는가? 체포해야 할 그 사람은 이렇게 뻐젓이 다니는 사람이 아닐 것이야. 그는 옆을 힐끔힐끔 보며 덤빌 거다. 그의 눈도 불안스러울 거구. 그런데 이 사람은 문직이 한테로 뻐젓이 나오지 않는가? 그리고 또 우산까지 휘두르며 아침 해'볕에 눈을 찡그리고—아마 이 사람에겐 아주 기분이 상쾌한 모양이다!

문직이들은 레닌을 보고 보고 또 바라 보다가 그만 그를 대문'간으로 통과시켰다.

그래서 울라지미르 일리이치는 조금도 덤비지 않고 거리로 나갔다. 그런데 그의 곁으로 장교들과 사관 후보생들을 태운 트럭이 줄곧 지나가군 했다. 그들은 다시 레닌을 찾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김 원필 역



참다운 청춘의 리상

김 환

영예로운 로동을 통하여 행복을 창조하고 있으며 자기의 재능과 희망에 따라 사회주의 건설자들로 자유롭게 자라나는 우리 나라의 청춘은 무한히 행복하다.

조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겐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로부터 항상 뜨거운 사랑과 배려가 돌려져 있다.

영웅적 인민의 후계자들인 새 조선의 청춘들, 다정 다감하고 혈기 왕성한 우리의 청년들에겐 추억보다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꿈이 많다.

청춘—그는 백화 만발하고 값높은 열매를 맺을 미래를 배태한 인생의 봄이며 꽃봉오리며 새싹이라 할수 있다.

그들 속에서 바로 오늘과 래일의 위대한 력사의 창조자들이 나온다.

그러니 청춘 시절의 귀중한 나날을 허송 세월할 수 없다. 숭고한 리상을 품고 그 실현을 위해 분초를 다투며 정력을 바친다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며 기쁨이다.

그다지 먼 과거도 아니다. 바로 11년전까지에만 하여도 일제 식민지 통치자들은 우리의 사지를 얽매고 눈과 입을 막고 있었으니 언제 우리 청춘들이 떳떳이 자기 리상에 대하여 론의조차 할수 있었던가?

그 얼마나 많은 청춘들의 재능과 천재가 버림받고 썩고 있었던가를 우리는 알고 있다.

해방된 우리 조국의 청년들, 그들은 처음으로 자유로운 새 생활의 창조자로 나섰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번영하는 래일을 믿음직하게 떠메고 나갈 당당한 영웅적 청년들로서 신임과 평가를 받고 있다.

회상할 필요도 없이 오늘도 우리 주위를 살펴 보자.

각계 각층 청년들은 다양한 희망을 표시하고 있다. 누구는 탄부로, 또 누구는 협동 조합원으로, 누구는 기수, 기사로, 누구는 교원, 작가로 될 것을 결의하며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성과를 빛내이고 있다.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리상에 대한 정확한 관점이 서고 있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제도하에서는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이 통일되여 있다. 그러나 사회적 리익은 언제나 더 귀중하다. 우리의 매개 청년들이 가지는 리상—그것은 언제나 개인의 리익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리익에 복종되여야 한다.

리상—그것은 우리들이 념원하며 동경하며 그를 위해 투쟁하는 생활

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혁명적 투사들은 자기 리상을 인류의 리상, 공산주의 리상, 민족과 계급의 리상 속에 두었으며 두고 있다. 세상에 인간 착취와 전쟁이 없고 무지와 빈궁이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지상의 락원에서 유족한 물질 문화적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세계의 공산주의자들은 싸웠으며 싸우고 있다.

이를 우리는 리상에 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관점이라고 말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공화국 북반부에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며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시키며 3천만 동포가 단락스러운 한가족 처럼 이 강산에 사회주의 락원을 세워 삶을 즐길 때만이 우리 청년들에게 더욱 보람찬 행복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러니 오늘 우리 청춘들의 리상은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의 결정을 받들고 조국과 인민의 념원인 사회주의 건설과 평화 통일의 날을 앞당기는 투쟁에 두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인류 해방과 평화를 위한 우리의 국제주의적 의무를 수행하는 데 두어야 한다.

개인의 리상이 일시적으로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 리상과 완전히 합치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무조건 사회주의 건설의 리상에 개인의 리상을 복종시켜야 한다. 우리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여야만 개인의 리상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과 조국의 부름에 호응하여 자기 인민과 인류 해방 사업을 위하여 개인을 희생시키며 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시키더라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고상한 도덕적 표현이며 청춘의 리상의 순결한 면모로 된다.

× ×

청년들은 자기 리상을 정확히 그리고 확고히 가지고 실현해야 한다.

위대한 목적만이 위대한 힘을 낳게 하는바 고상한 리상을 가짐으로써만 로동과 학습에서 흥취가 나고 창의 창발성이 샘솟는다.

그런데 일부 청년들은 유감스럽게도 리상에 대하여 정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어떤 청년들은 명예, 직위, 대우 등을 따지면서 그를 리상으로 삼는다. 만약 리상에 대하여 이런 관점을 가진다면 직위가 높고 대우가 좋으면 사뭇 좋아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할때 곧 실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위임 받을때에 그것을 조국의 현실적 요구로 부터, 혁명 사업에 대한 역할로 부터 문제를 고려하고 그 부문에서 정말 무명의 영웅으로 되려고 노력해야 하며 결코 개인의 명예, 직위, 대우를 고려해서는 옳지 않다. 우리는 항상 일은 자기 보다 더 많이 하는 동지들과 비교하면서 사상 수양을 해

야만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선 일터와 직업에서 비천이 물론 없다.

그런데 직업과 일터에 대하여 일부 청년들이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일부 동무들은 인민 경제의 힘들고 어렵고 뒤떨어진 부문들을 담당 수행하려는 청춘의 애국적 정열 대신에 헐한 일터를 찾으며 일부 초, 고중 졸업생들은 농사 일을 천시하고 도시로 나올 것과 사무원이 될 것만을 희망하고 있다.

3점이나 받으면 만족해 하는 학생, 자기 책임량을 미달해도 량심의 가책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는 로동 청년들도 일부 있다.

일부 농촌의 초, 고중 졸업생들 중에는 아직도 부모의 덕으로 생활하면서 건달 기분을 근절하지 못하고 마음을 농촌과 도시의 량편에 걸고 동요하고 있으며 또한 농사 일에는 별 지식이 필요 없다는 구실로 자체 학습과 기술 문화적 개건에 등한 하다. 일부 동무들은 리상에 맞지 않는다는 구실로 부당하게 리혼을 제기하거나 경솔히 사랑과 결혼을 하는 일도 있으며 또한 뒤 떨어진자에 대한 동지적 방조와 우애심이 희박하고, 유무상통하고 호상 협조하는 미풍이 약하며 자기의 로력점수만 따지고 사회 사업에 무관심한 경향도 있다.

자기 리상을 지상 락원인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래세의 행복》 즉 《천당》에 두고 있는 동무들도 있다.

물론 많지 않는 사실이지만 우에서 말한 이런 일련의 경향들은 결국 리상에 대한 부르조아지의 관점과 통하고 있다. 부르조아지들은 오직 돈과 명예, 높은 직위를 리상으로 생각하며 그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들은 개인 리기주의적인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벗도 인민도 조국도 지어 부모 친척도 배반하며 자신의 리익을 위하여 일체를 복종시키려 한다.

우리는 결코 이런 소위《리상》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런 견해 및 행동과 항상 투쟁해야 한다. 우리는 진실로 각자들의 리상을 조국의 현실적 요구에 결합시키며 자기맡은 사업 분야와 일터에서 혁명의 수래 바퀴를 전진시키는 귀중한 라사못 답게 정열적으로 일하며 성장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 ×

청년 세대들은 누구나 고귀한 리상을 가져야 하며 그를 실현하기 위해 완강해야 한다. 리상이 실현될 때에 우리는 행복과 쾌락을 느낀다. 그러나 이 길은 결코 탄탄한 대로가 아니라 때로는 험한 가시 밭길도 많이 가로 놓인다. 문제는 투쟁과 로력

으로 자기의 리상, 자기의 행복을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북조선 민청 제3차 대회 석상에서 김 일성 원수는 《행복된 사람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난관과의 투쟁을 거쳐서 행복을 만들어야 하며 행복을 쟁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청년들에게 가르치셨다.

우리의 생활—그것은 긴장된 로동이며 곧 투쟁인바 그것만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국가 살림에서나 개인 살림에서나 거의 무에서 출발했던 전후 3년 여 간의 위대한 경제 복구 건설 사업에서 영웅적 인민이 바친 고귀한 로동 정신은 바로 오늘과 같은 위대한 성과를 우리들에게 가져 왔던 것이 아닌가? 앞으로도 또한 그러할 것이며 조국은 평화적으로 통일되고야말 것이며 사회주의의 휘황한 꽃밭이 우리의 것으로 되고야말 것이다. 청년들은 일터마다에서 심심소일할 것이 아니라 긴장되고 동원되여 창조적으로 일해야 하며 심혈을 바치여 완강하게 자기 리상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조국과 당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 관계를 처리할 때 《조국과 당의 리익은 무엇 보다 높다》는 원칙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하며 개인의 리익이 조국과 당의 리익과 모순될 때에는 주저없이 무조건으로 당과 혁명의 리익에 복종할 줄 알아야 한다.

청춘의 참다운 리상—그것은 당과 정부의 정책속에 있나니 이를 자각적으로 실천하기에 앞장 서야 한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던지 그것이 조국과 당이 맡긴 일이라면 그리고 그곳에서 성과를 올린다면 각자의 진정한 프로레타리아적 리상은 실현될 수 있다.

개인의 향락이나 안일을 위해 청춘 시절을 보잘것 없이 보낼 것이 아니라 혁명 위업을 위하여, 인류의 해방, 민족과 인민과 로동 계급의 행복을 위해 헌신 분투함으로써 일생을 값높고 자랑차게 살아야 할 것이다.



청년탄부들은 돌격의 앞장에 섰다

—신천탄광에서—

종합 브리가다

—리 재갑 동무 말입니까? 그는 지난 1월분 계획을 156.6%나 초과 완수했고 2월에는 자기의 일별 계획을 210%나 한 날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업은 조직할줄 알며 항상 새로운 예비를 탐구할줄 아는 동무거던요. 례를 들면 그가 조직한 종합 브리가다만 해도 그렇지요.

탄광 민청 위원장이 이처럼 자랑으로 말하던 리 재갑 동무를 나는 점심때 만났다. 그는 작달막한 키에 꼭 알맞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얼굴엔 탄'가루가 가맣게 묻었으나 두 눈만은 유난히도 영채로웠다. 그는 들고온 깐데라등을 조심히 책상 우에 놓으면서 자리에 앉았다.

내가 그에게 종합 브리가다에 대한 경험을 들려 달라고 청한즉 그는 아주 겸손하게 대답하였다.

—뭘 그리 대단한거라구요. 누구던지 자기 사업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다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이야기 합지요.

× ×

바로 1957년 계획 실행을 위한 탄광 궐기 대회가 있은 날부터 리 재갑 동무의 머리엔 대회에서 토론한 문제들이 자꾸만 되살아 올랐다.

—예비는 절대로 큰 뭉텡이로만 있을수 없다. 적은 것이 종합되여 큰 것이 된다.

이런 것은 리 재갑 동무에게 증산과 절약을 위한 그 어떤 가능한 것을 탐구하도록 고무하였던 것이다…

그렇지! 나 자신부터 이때까진 확실히 큰 것만 찾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돌격대 사업에선 찾아내야 할 예비가 없을까?…

그러던 중 어느날 이런 일이 있었다. 작업장에 나가니 갱도 막장이 붕괴되여 있었다. —또 말썽거리가 생겼군—갱내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 벌써 교대자들 사이에는 그냥 인계하겠다느니 보수하기전에 인계 못받겠다느니 하고 옥신각신 다툼질이 벌러졌다. 원인은 3개의 브리가다가 제제금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려고 다음 교대는 생각지 않고 좋은 곳만 골라 파면서 제때에 위험한 개소를 보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였다. 즉 교대본위주의에서 오는 폐단이였다. 리 재갑 동무는 생각하였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교대본위주의를 근절할 수 있을가 하고…물론 종래에도 이와 같은 경향과 민청 단체에서 강하게 투쟁하였으나 그 폐단은 쉽사리 근절되지 않았다. 재갑 동무는 이에 대하여 작업장에서도 골돌히 생각하였고 집에 가서도 연구해 보았다. 그는 드디여 이런 의견을 동무들 앞에 내놓았다. 즉 세개의 브리가다를 통합하여 하나의 종합 브리가다를 만들고 거기에 유일 책임자를 두자는 것이였다. 이것은 물론 그가 두고두고 생각한 끝에 대담하게 내놓은 제안이지만 일부 동무들은 그에 동의하지 않았다.

—뭐 우리가 잡반 브리가다와 합친다구… 그럼 우리 브리가다가 이



때까지 해놓은 생산 실적이 쿡 떨어지게!

—그렇구 말구. 그야 말로 뒤죽 박죽을 만들 셈이군. 원 어림도 없지.

하고 말하는 동무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재갑 동무의 확신은 굽어들지 않았다.

—동무들!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소. 그렇게 하나로 합치면 첫째론 3개의 브리가다가 제제금 제 욕심만 채리는 현상이 없어질께고 둘째론 로력을 더 합리적으로 조직할 가능성이 생길거란 말이요.

그리하여 재갑 동무는 자기의 이 착안점을 탄광 민청 단체에 제기했으며 민청 단체는 이를 다시 생산 협의회에 제기하게 되였다. 젊은 기사들은 현재 다막장 순환 작업이 광범히 도입되고 따라서 로력의 합리적 조직이 긴급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탄광의 실정으로 보아 그러한 작업 방법이 절대로 유리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행정측 역시 이를 승인하고 그 종합 브리가다장으로는 리 재갑 동무를 임명하였다.

이리하여 종합 브리가다는 자기의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그 우월성은 점차로 실증되여 갔다. 탄부들은 전체 종합 브리가다의 생산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비단 자기의 브리가다에서만 잘 해선 안되며 이에 망라된 다른 브리가다 역시 잘 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념두에 두게 됨으로써 좋은 곳만 골라 파던 경향이 차츰 없어졌으며 간혹 보수할 곳이 있으면 완전히 보수한 후에야 교대 반원들에게 인계해주는 습성이 생기게 되였다. 작업의 인계 인수도 정확하게 되였으며 종래까지 1—2시간씩 걸리던 인계 시간도 불과 30분씩 걸리게 되였다.

심지어 이런 일까지 있었다. 하루 아침은 재갑 동무의 교대 반원들이 작업 현장에 나가니 벌써 하루' 동안에 쓸 갱목들과 성목들이 말짱 준비되여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선 교대 브리가다원들은 어인 영문을 몰라하는 후 교대 동무들에게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가 작업 휴식 시간을 틈타서 운반해다 놨네, 잘 써주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그들은 어느듯 바로 요일전 옥신각신 다투던 일을 말짱 잊기라도 한듯이

서로 손을 굳게 잡아 흔들었다.

이 종합 브리가다 사업은 생산에 커다란 혁신을 일으켰다. 이 방법은 비단 교대본위주의만 청산한 것이 아니라 로력의 합리적 조직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주어 종래까지 매 교대반에 배속되여 있던 동발 운반공이 진종일 걸려 운반하던 것을 종합 브리가다원들은 하루에 3명의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매 교대마다 한번씩만 탄차에 실어 나르면 충분하게 되였다.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기로 좋은 방법이였다.

—자기 사업을 잘 연구하기만 하면 이렇게 증산과 절약의 예비는 얼마던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새로운 방법들을 탐구하겠습니다. 갱내를 구경할 마음은 없습니까? 돌격대원들이 일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시지요. 안내해 드리지요.

그래서 나는 선선히 동의하고 리 동무를 따라 섰다.

청년 탄부들의 마음

우리들은 제 4갱에 들어 섰다. 캄캄한 장벽이 불시로 앞을 막는다. 조마조마한 가슴으로 '깐데라' 불을 든든히 거머쥐고 이따금 맞띠우는 탄차들을 피하기도 하고 혹은 키낮은 딸따리굴을 기여 나가기도 하면서 한참만에야 이 갱내에서도 제일 일 잘한다는 지 창선 브리가다의 돌격대원들을 찾아 냈다. 그들 역시 리 재갑 청년 브리가다에 속한 동무들이였다. 선산 지 창선 동무도 후산 김 송자 동무도 모두가 스물 고개를 갓 넘은 애숭이 민청원들이다. 선산 지 창선 동무가 탄맥과 탄질에 따라 곡괭이를 휘둘으면 검은 석탄이 와그르르 무너진다. 그것을 김 송자 동무와 또 한 명의 후산이 딸따리에 퍼담아 싣고 조구통 있는 곳까지 달리는데 그 작업 모습이 흡사 번개와 같다.

—오늘 계획을 얼마나 했습니까? 휴식 시간에 내가 이렇게 물은 즉 송자 동무는 그제서야 목에 건 수건으로 흐르는 땀을 훔치면서 대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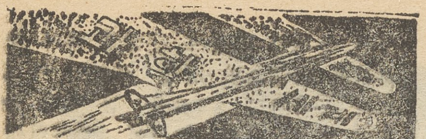
—계획은 17함인데 지금 22함 했습니다.

—대단 하시군요. 그래 탄광에서 일하는 재미는 어떠 합니까?

—꿀맛도 먹어봐야 안다고 직접 체험없는 사람은 몰라요. 저는 려행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인데 이 기차도 내가 캔 석탄으로 갈 것이며 저 차창 밖에 보이는 공장들도 우리가 캔 석탄으로 돌거니 하고 생각하면 정말로 인민 경제의 가장 중요한 초소에 섰다는 자랑으로 하여 그저 막 가슴이 높이 뛰여요. 정말 이 석탄이야 말로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검은 금덩어리이며 공업의 식량이다 하는 생각이 더욱 치미러 오른답니다. 우리 브리가다에선 9월 탄부 절까지엔 꼭 년간 계획을 완수할 예정이야요. 도시나 공장에 가시거던 그곳 청년들에게 전해 주세요. 석탄에 대한 걱정은 조곰도 마시라구요. 호호…

나는 이 나어린 처녀 채탄공의 부탁이 퍽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수첩 속에 얼른 적어 넣었다.

본사 기자 한 희만



별에 대한 이야기

태양은 그 어떤 특수한 물건이 아니라 별들 중의 하나인데 다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에서 그중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보일 따름이다.

하늘엔 태양보다 몇백 만배나 더 큰 별들, 즉 거성(巨星)이 있는가 하면 태양의 6백만 분지 일밖에 되지 않는 소위 왜성(倭星)들도 있다.

우리가 맨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은 모두가 다 하나의 큰 집안 즉 은하계(銀河系)를 이룬다. 태양이 들어 있는 이 은하계에는 무려 1, 500억만여 개의 별들이 있다.

그러면 은하계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가? 이것은 은하계의 한쪽에서 비치기 시작한 빛이 다른 쪽 끝까지 이르는데 10만년이나 걸린다는 것으로써도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빛은 1초에 30만 키로메터의 속도로 전파되는데 빛이 1년간 전파되는 거리를 일광년이라한다)

우리는 은하계 가운데서 태양과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혹성(惑星)—혹은 행성(行星) 이라고도 함—들을 합하여 따로이 태양계라고 부른다. 이 태양계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은하계의 중심 주위를 2억 만년을 기한으로 하여 한번씩 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은하계가 하늘에서 오직 유일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이 너무나도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맨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 막상 현대적인 천체 망원경으로 보면 하늘엔 은하계와 같은 그런 독립적인 항성 집단들이 있다. 이런 항성 집단들은 지금 수억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천문 관측 기구가 발전됨에 따라서 더 많은 항성 집단들이 새로이 발견될 것이다.

사람들은 별들이 처한 위치와 현상에 따라 그것들의 이름을 단다. 례하면 북두칠성은 일곱개의 별이 합쳐서 국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북두 칠성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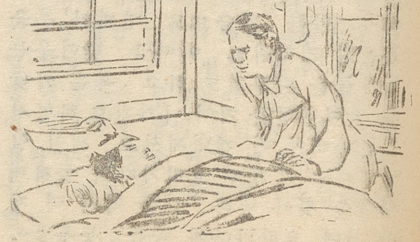
하늘엔 움직이지 않는 것이란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멀리에 있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항성(恒星)이라고 부친 별들도 실상은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흔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말들 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태양도 역시 한곳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초당 20키로메터의 속도로 직녀성 부근을 향해 전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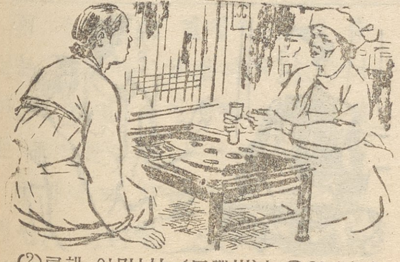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태양의 온도는 매우 높다. 그러나 하늘엔 태양보다 더 뜨거운 별들이 얼마던지 있다. 붉은 색갈을 가진 별은 온도가 낮고 청백색을 가진 별은 온도가 제일 높다. 붉은 색갈을 가진 별의 온도가 약 3천도 좌우라면 청백색 색갈을 가진 별의 온도는 1만내지 3만도에 달한다. 태양의 표면 열도는 6천도이다.

그러면 이러한 별들은 대체 어느 때 생겼으며 또 어떤 진화(進化) 과정을 밟아 왔는가? 이것은 아주 흥미 있는 물음이





(1)문덕군 어룡리에 사는 박 룡해는 한때 악성 감기에 걸려 몹시 앓았다. 신열이 매우 높았던 관계로 룡해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밤'중에는 더욱 심하였다. 그리하여 온 집안은 매우 걱정하였다.



(2)룡해 어머니는《도깨비》놀음인 줄만 알고 십리나 되는 먼 길을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8년전에 돌아간 이웃 할머니의 죽은 혼이 귀신이 되어 룡해에게 붙었다고 하면서 꼭 푸닥거리를 해야만 낫는다고 하였다.



(3)다음날 룡해네 집에서는 푸닥거리가 벌어졌다. 무당은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 가지와 향나무 껍질에 무쇠 쪼박을 두고 끓인 물을 마시게 하였다. 룡해는 무당이 시키는대로 하였다.

며, 그에 대한 대답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다만 한가지 과학적 론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별은 하나님이 만들어 낸 것도 아니며 반동적 천문 학자들과 관념 철학가들이 주장하는 그 수 많은 별들이 동시에 생겨난 것도 아니며 그리고 별의 생명이 어느때 가서는 영원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쏘련의 저명한 천문 학자이며 원사인 웨. 아. 암바르쭈얀은 우리 은하계 내에서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찾아내지 못한 새별들의 집단 —련성단(聯星團)— 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하늘의 일정한 구역에서 그루빠 별로 생겨난 별들의 집단이다. 이 집단 즉 《련성단》은 아주 불안전하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개의 그루빠별로 생겨나자 이미 있는 다른 별들의 힘(引力)의 영향을 받아 급속도로 붕괴된 후, 우리 은하계 내부에 각각 널려지게 되였다.

보통 별들도 과거 어느 한 시기엔 《련성단》에 들어 있었다는 것을 리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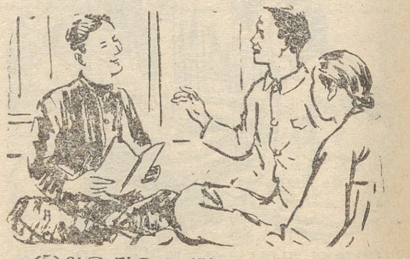
여기서 또 한가지 재미 있는 것은 《련성단》에 속한 애기별들은 모두가 그 표면에서 매년 지구의 크기만한 물질을 하늘에 내뿜는다는 것이다. 온도가 낮은 오래된 별들에서는 이런 현상을 찾아 볼 수 없다.

다른 각도에서 쏘련 과학자들은 개발 모양을 가진 성운마다 그 군데군데에서 까스 물질의 수축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곧 새 별이 생겨나고 있는 과정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과학적 론증들을 살펴 볼때, 별은 하나님이 만든 것도 아니며 또 앞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4)이런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병이 나을리 없었다. 룡해의 병은 더욱 심해 갔다. 마침 이런 때 부근 탄광에서 일하는 그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룡해를 대리고 문덕읍에 있는 인민 병원을 찾아 의사의 진찰을 받았다.



(5)약을 먹은 룡해는 며칠후 완전히 나았다. 룡해는 무당한테 속은 자기를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도 병들면 의사에게 진단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인 무당을 비난하고 있다.

누가 민청원이 될수 있는가

《민청원으로는 만 14세부터 28세 까지의 청년으로서 조선 민주 청년 동맹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며 민청의 일정한 조직내에서 생활하며 규정된 맹비를 납부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만 28세를 초과한 민청원이 민청 생활을 더 계속할 것을 원하는 경우는 2년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에는 민청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이 규정되여 있습니다. 그러면 민청원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란 무엇입니까?

규약에도 있는 바와 같이 민청원이 되자면 세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민청원이 되자면 조선 민주 청년 동맹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민청의 강령에는 민청의 투쟁 목표와 과업이 밝혀져 있으며 규약에는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민청의 모든 내부 질서와 사업 방법들이 규정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청이 사상과 행동이 통일된 튼튼한 조직으로 되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민청원이 민청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고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한다는 것은 민청의 강령과 규약에 규정된 투쟁 목표를 자기의 투쟁 목표로 삼으며, 또한 규약에 규정된 여러가지 규칙을 자기의 생활과 활동의 규칙으로 삼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례로서 민청 규약에는 《조선

민주 청년 동맹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자기의 기본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되여 있는데 민청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는 사람은 민청의 이 기본 임무를 자기의 기본 임무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사람입니다.

민청원이 되려면 이와 같이 민청의 강령과 규약을 말로만 승인할 것이 아니라 그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이라야 합니다.

둘째로 민청의 일정한 조직에서 생활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민청원이 되려면 민청의 어느한 조직에 참가하여 조직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민청이 자기의 강령과 규약을 실현하려면 민청이 튼튼한 조직이 되여야 합니다. 청년들의 조직된 힘, 이것이 없이는 민청은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조직의 힘이란 우선 민청원들이 민청 조직에 참가하며 조직 생활을 충실히 함으로써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청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한 초급 민청 단체에 속하여 민청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조직 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초급 민청 단체의 모든 사업에 정상적으로 참가하며 민청의 결정, 지시들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째로, 민청원이 되려면 규정된 맹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은 민청원이 동맹을 물질적으로 원조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맹비는 민청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원천입니다. 이 자금은 민청원이 맹비를 납부함으로써 공동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맹비를 납부하는 것은 동맹을 물질적으로 원조하는 데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맹비의 납부를 통하여 민청원의 조직 관념과 규률성을 기르며 민청 단체와의 일상적 련계를 맺게 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규약은 맹비를 납부하는 것을 민청원이 될수 있는 조건의 하나로 규정하였습니다.

리순신 장군



남 궁 만

때는 리조 선조왕(宣祖王)때였다. 조정의 량반 벼슬아치들은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하여 당파 싸움만을 일삼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날이 나라는 황폐해 갔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헐벗고 굶주리게 되였다.

이러한 나라의 형편을 눈치챈 왜적들은 일찍부터 우리 나라를 탐내고 있었던 터이라 침략의 마수를 아니 뻗칠 수 없었다.

1591년 3월이였다. 리 순신 장군은 전라 좌수사(全羅 左水使)로 부임하자 벌써부터 생각하여 오던 거북선을 만들었다.

그리고 화전통이며 오늘의 대포, 총포와 활을 만들고 여러가지 군기를 빠짐 없이 마련하였다.

—언제나 왜적은 온다. 방비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장군의 신념이였다. 그래 장군도 전력을 다하여 방비에 힘썼다.

아니나 다를까? 간악한 왜적들은 쳐들어 왔다. 때는 1592년 4월 원쑤들은 동래와 부산으로부터 우리 땅에 기여 올랐

다. 관군은 이내 쫓기고 말았다. 썩어진 량반 벼슬아치들은 저희들만 살겠다고 강토와 백성을 버리고 달아 났다.

원쑤들은 거칠 것 없이 기여 들었다. 전라도와 경상도는 물론 우리 나라 북쪽 깊이에까지 쳐 들어 왔다. 우리 나라 강토는 충천하는 불'길에 휩싸이였다. 간악한 왜적은 북으로 북으로 홍수마냥 밀려 들면서 거리와 마을을 재로 만들었으며 략탈을 일삼았고 백성들을 닥치는대로 살해하였다. 그리하여 왜적은 우리 나라에 자기들을 물리 칠수 있는 그어떤 힘도 없는 것으로 장담하였었다. 그러나 이것은 놈들의 망상이였다. 리 순신 장군이 인솔하는 전라 좌수영의 수군이 원쑤에게 굴하지않고 맹렬하게 싸웠던 것이다. 벌써 앞날을 알고 장만하였던 군기는 원쑤들을 다구쳐 나갔다.



이때 도처에서는 백성들이 의병(義兵)을 일으켜 싸웠다. 수백 수천의 의병대는 도처에서 원쑤를 무찔렀다. 이에 용기를 얻은 관군들도 다시 진지로 돌아와 싸우는 자가 많게 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의 남쪽 관문인 전라도와 경상도에서는 륙지에서, 해상에서 반격전이 일거에 버려졌다.

왜적은 싸움마다에서 패전하였다. 그러나 놈들의 침입은 계속되였다. 왜적의 이런 계속적인 침입을 물리치기 위하여서는 3도의 수군을 하나로 통솔하여 전면적인 작전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래 이런 중대한 소임은 장군을 두고는 다른 사람은 그 적임자가 없었다.

리 순신 장군은 1593년 8월 3도 수군 통제사(水軍 統制使)로 승진하였다. 그때 우수사는

원균(元均)이라는 사람이였는데 이자는 본래 조정에서 대관들에게 아첨으로써 벼슬을 한 자로써 오히려 자기보다 후배인 장군이 자기의 상관이 되자 앙심을 품고 장군을 헐어 뜯기 위하여 조정에다 장계를 올리고 싸움보다도 장군을 비방하는 것을 일삼았다.

바로 이 때에 적장 소서 행장(小西 行長)이란 놈이 반간을 쓰게 되였다. 그것은 소서 행장은 조선 전쟁을 그만 두고 싶은데 가등 청정이 말을 듣지 않을 뿐더러 자기와는 사이가 나쁘니 이 놈을 잡아 죽여만 주면 자기는 그대로 일본으로 돌아 가겠다는 것이였다. 가등이란 놈은 곧 일본에서 오는데 그 배를 알려 줄 것이니 리 순신 장군으로 하여 이를 처버리게 하라는 조건까지 달았다.

이것은 물론 원쑤들이 장군을 잡아 치움으로써 제해권을 장악하려는 간계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였다. 그러나 썩어진 무리들만 모여 있는 조정에서는 이것을 승락하였다. 장군에게는 가등이놈을 잡으라는 어명이 내렸다.

그러나 장군은 어명에 복종할 수가 없었다. 원쑤의 전선은 증원되고 잔뜩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 속으로 찾아 간다는 것은 자진하여 죽엄의 구렁텅이로 찾아 가는 것이다.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군사들을 개죽음을 시킬 수는 없다. 더구나 어명이 전달되였을 때는 가등이 장문포(長門浦)에 나타났다는 보고가 온 때이므로 출동할만한 시간도 없었다.

그러나 장군은 어명을 어겼다는 죄로써 잡히고 말았다. 통제사와 인주는 원 균에게 넘어 갔다. 장군의 몸에는 오라'줄이 얽히였다.

군사들과 백성들은—장군을 왜 옥에 가두는가?—하고 울분의 목소리를 높이였다.

왜적들의 간계는 신통히도 들어 맞았다. 장군이 압송되고 원 균이 통제사 자리에 앉아 오래지 않아 왜적들은 공격해 왔다. 원 균은 변변히 싸우지도 못하고 전패를 당하였다. 그야말로 배 한 척 거두지 못하고 원 균이 자기만이 도망치고 말았다. 장군과 군사들이 그렇게도 힘을 들여 만들었던 전선들은 한 척도 남지 않고 깨여졌다. 군사들이 싸움 속에서도 자지 않고 만들었던 그 수많은 군기들은 연기가 되고 말았다.

어찌 그 뿐이랴? 군사들과 백성은 무참한 살륙을 당하였다. 불속에서 그래도 백성들은 곡식'더미를 안고 아우성 치고

아이들은 엄마를 부르며 죽어 갔다.

이렇게 사세가 불리하게 되자 조정은 역적으로 몰아 죽이려던 리순신 장군을 다시 방면하여 백의 종군을 시키게 되였다. 오만 무례하고 나라를 생각안하는 조정의 처사를 생각하면 어찌 다시야 전선으로 나갈 것인가? 그러나 장군은 썩어빠진 조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바쳐야 한다는 한줄기 우국지사의 불타는 마음으로 전선으로 향하였다.

1597년 8월 3일 조정에서는 다시 장군에게 통제사의 직권을 내렸다.

사세는 급박하게 되였다. 장군은 진주로부터 한산도를 향하여 떠나갔다. 장군이 거느린 군사란 군관 9명과 군사 6명뿐이였다.

장군이 다시 통제사로 부임된다는 소문을 듣자 피란 갔던 백성들은 다시 모여 들기 시작하였다.



장군이 임지에 당도하였을 때에는 처참하였다. 전선, 군기, 량식 아무것도 없다. 뿐만 아니라 팔월 중추도 넘어서 인제는 바람이 제법 차다. 그러나 군사들은 모두 홋잠뱅이다.

장군은 가까스로 전선 열척

을 건져서 수리하였다. 군기도 만들었다. 어물도 잡고 소금도 구었다. 싸움과 살림 차비는 어울리기 시작하였다.

백성들은 우선 저희들의 옷을 벗어 군사들에게 입혔다. 량식도 내여 주었다. 그들은 쇠부치를 모아 들이고 군기를 만들고 어물을 잡으며 군사들과 한몸이 되였다.

백성들은 원쑤와 싸워 이길 굳은 결의를 더욱 다지게 되였다.

원쑤들도 다시 냄새를 맡고 기여 들었다. 그러나 번번히 격퇴되고 말았다. 때는 바로 8월 16일 아침이였다. 명량(鳴梁)해에는 원쑤의 함선이 수없이 나타났다. 무려 3백 3십 3척을 헤였다. 적선을 피할 길은 없었다. 그래 장군은 위선 피란민들이 가지고 온 배들을 해안에다 나란이 세워서 마치 전선처럼 보이게 하고는 장군 자신이 선두가 되여 함선을 인솔하여 원쑤를 맞받아 나아 갔다.

우리는 전선 불과 열척이다. 원쑤의 전선은 삼백척을 넘는바 이것은 정말 비장한 대조가 아닐 수 없었다.

원쑤의 선단은 우리 전선을 포위하였다. 그 수많은 적선은 열겹으로 포위하고도 남았다. 원쑤들은 서로 패를 나누워 사면으로 일차의 공격이 끝나면 다시 다른 패가 들어오고 하면서 연신 번갈아 가며 공격해 들어 오는 전술로 나왔다. 원쑤들은 연신 배를 어기채며 총포와 화살을 비'발처럼 날리여 기승을 부렸다.

이 때 산 우에는 수많은 피란민들이 도끼, 낫, 쇠스랑 같은 연장을 잡고 바다'가로 몰려오고 있었다.

전투는 격렬하여졌다. 원쑤의 총탄과 화살은 비'발처럼 쏟아졌다. 적선은 우리 전선들을 한꺼번에 삼켜 버릴 듯한 기세였다. 허지만 천지를 진동하는 폭음과 함께 넘어가는 것은 원쑤의 전선이였고 배'전의장군의 자태는 다시 뚜렷이 나타났다. 장군는 다시 활을 쏘았다. 배마다에서는 화전통이 노호하고 총탄이 울었다. 원쑤의 배는 열척 스무척 무리 장사를지났다.

—자 우리는 이러고만 있을게 아니라 원쑤를 무찔읍시다? 하는 소리가 하늘 높이 메아리하자 바다'가의 백성들은 제각기 벼랑 우에서 돌을 날리고 장정군들은 물로 내려가 물으로 다가선 적선들을 족쳐냈다. 싸움이 끝난것은 어느듯 해도 기울고 붉은 노을이 파도를 피빛으로 물들일 때였다. 우세를 자랑하는 왜적의 두목 마다시(馬多時)란 놈이 붉은 비단 옷이

요란한 부채를 들고 허풍을 떨며 장군의 지휘선에까지 육박하였다. 바로 옆 배에서 보고 있던 젊은 군사는 눈에 홰'불이 섰다.

원한에 떨리는 분노를 참을 수 없는 젊은 군사는 배'머리를 돌렸다. 그리고는 있는 속력을 다하여 원쑤의 배를 향하여 돌진하였다. 총탄을 퍼부었다. 화살을 날리였다. 젊은 군사는 있는 힘을 다하여 원쑤의 두목을 겨누고 마지막 살을 날리였다.

명중 되였다. 마다시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바다로 떨어졌다. 기세를 올린 우리 군사들은 적 두목의 전선을 일격에 깨뜨리고 말았다. 급기야

—만세!—

소리는 노호하는 파도 소리를 제압하며 하늘 높이 진동하였다. 그러자 기세가 꺾인 원쑤의 선단은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군사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적선을 다급하게 추격하였다.

드디여 명량 해전에서는 빛나는 승리는 왔다. 단 열척의 배로써 원쑤의 대선단을 족쳐낸 것이다.

장군의 마지막 전투는 로량(露梁)해전이였다. 그것은 12월 19일 원쑤의 선단 5백 여척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장군은 선두에 서서 원쑤들에게 마지막 명맥을 찌르는 순간 자신도 적의 총탄에 맞아 쓸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원쑤들이 마지막 명맥을 걸을 때까지 자기의 죽음을 군사들에게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

1957. 3. 2

그림. 백 대 진



화성에도 식물이 있다

쏘련 천문 학자들은 최근에 화성에도 식물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아주 확신성 있는 말이다.

화성에는 물이 있다. 화성은 대기에 둘러 싸여 있는데 대기를 이루고 있는 주성분은 질소 이산화 탄소 및 아주 적은 량의 산소이다. 거의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걸쳐 관측하였는바 화성의 온도는 섭씨 10—25도이다. 이와 같이 화성은 식물이 자라날 수 있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화성에는 시속 25—30키로메터의 속도로 움직이는 구름도 있다. 이것은 화성의 대기속에 기류(바람)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여 준다.

그리고 화성에는 눈, 서리 혹은 낮게 떠도는 안개도 있다.

참된 생활의 길을 따라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나는 경훈 동무가 자기를 낳고 기른 고향의 협동 조합을 떠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전선 용사가 적 앞에서 자기의 초소를 떠나는 행동과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째서 그런가? 오늘 우리들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영예롭고도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이 간첩 파괴 활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또 원쑤들이 《북진》 전쟁에 발광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 경훈 동무의 행동은 전투 리탈 행위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그가 공장에서건, 탄광에서건, 농촌에서건, 깊은 산림 속에서건, 어디서나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 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이 얼마나 귀중하며 그것이 얼마나 많은 피의 대'가로써 얻어진 것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된다. 과거 우리 집에서는 대를 내려 오면서 머슴 살이를 했다. 그때, 우리 마을에는 백 여 호의 농민들이 있었는데 대개가 다 소작농이였다. 몇놈의 지주들은 이들 농민들을 마음대로 착취하였다. 농민들은 소작을 부치는데도 땅 한마지기에 십원씩 대랍을 바쳐야 했고 대랍을 다 주고 소작 계약까지 했다가도 지주놈의 비위에 거슬리면 소작 땅조차도 도루 빼앗기고 말았다. 소작 땅을 빼앗긴 농민들은 지주놈을 반대하여 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일제 경찰은 지주의 편을 들어 농민들을 감옥에 넣었다. 이리하여 남은 가족들은 굶어 죽거나 정든 고향에서 쫓겨나 류랑 걸식을 하였다. 이때 나의 할아버지도 소작 땅을 빼앗기고 북간도로 떠났으며 고생살이 끝에 돌아 가셨다. 이것은 우리 집이나 우리 마을 농민들만이 당한 것이 아니라 일제 시기의 농민이면 누구나 다 겪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경훈 동무! 생각해 보십시요. 땅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얼마나 원한과 서름 속에서 살아 왔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을 위하여 피를 흘렸습니까? 먼옛 날은 그만두고라도 지난 전쟁 기간에 미제와 리 승만 역도의 침략으로부터 자기들이 쟁취한 모든 고귀한 것들을 수호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우리 인민들이 희생되였습니까?

해마다 풍년을 맞는 오늘의 우리의 대지엔 실로 우리 선조들과 인민들의

이런 성스러운 피가 스며 있습니다.

경훈 동무! 바로 우리 선조들의 이와 같은 피의 대'가로 해서 동무의 부모들은 오늘 협동 조합에 들어서 농사 지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남반부에 있는 미제와 리승만 도당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도루 빼앗으려고 기회만 엿보며 발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나 과거와 같은 그런 암담한 생활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훈 동무 자신도 행복하게 잘 살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경훈 동무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고 앞으로 더 잘 살자면 우리가 전취한 모든 것을 고수하며 로력과 투쟁으로써 그것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훈 동무! 우리가 이미 쟁취한 것들을 고수하며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이땅 우에 사회주의의 락원을 꾸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오직 동무나 우리들입니다. 만약 선조들이 쟁취한 성과를 우리들이 고수하지 못한다면 우리 후대들은 우리를 두고 두고 저주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혁명의 열매를 고수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영예로운 의무이며 책임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경훈 동무가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뉘우치고 하루 속히 고향에 돌아가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는 영예로운 전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량강도 보천군 청림리
푸리봉 농업 협동 조합
민청 위원장 조 범직

지 상 토 론

농사는 천한 일인가?

경훈 동무는 농사 일을 아주 천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견해이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농사 일이 과연 천한 일이겠는가? 나는 여기에 대하여 토론하려고 한다.

물론 일제 시대에는 농사일이 천한 것으로 생각되였다. 그때 농민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지주들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뼈가 휘도록 1년 농사를 지어도 가을에 가서 남는 것은 빚 뿐이였다. 이런데서 로동의 영예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8.15 해방 후엔 사정이 달라졌다. 공화국 북반부의 농민들은 땅의 주인으로 되였다. 더는 지주들을 위하여 일하지 않게 되였다. 농민들의 로력의 성과는 모두다 자기 자신들의 것으로 되였다. 더우기 오늘날 우리 농촌에 농업 협동 조합이 조직된 후에는 일하면 한것만큼 그 로력에 의한 분배는 많아지고 있다.

초중 졸업생인 우리 조합의 춘삼 동무는 농민들 속에서 다수확 농산 기술을 허심하게 배우면서 부지런히 일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에 325점의 로력 공수를 벌었다. 그는 벼 20가마니와 현금 2만원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애인과 더불어 단락한 새 가정을 꾸리였다.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던 농업 지식에 관한 책들과 잡지, 소설 책들도 많이 샀다. 그는 자기의 농산 지식을 더

욱 넓히면서 안해와 더불어 조합원들의 앞장에 서서 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례는 우리의 주위에 얼마던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자부심과 영예는 결코 여기에만 있지는 않다. 우리가 우리의 농사일을 더 영예롭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는 거기에 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우선 사회주의 건설자들인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이 먹어야 할 쌀이 있어야 하고 중공업과 함께 발전하는 경공업의 중요한 원료로 되는 공예 작물, 유지 작물들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다 우리 농민들이 아니고서는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경훈 동무에게 묻노니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영예로운 일이 아닌가? 경훈 동무는 과연 이것을 느끼고 있는가? 만약 우리 청년들이 모두다 경훈 동무와 같이 농사를 기피한다면 사회주의 건설에 나선 전체 인민의 식량과 경훈 동무 자신이 먹을 쌀은 누가 생산하며 또 경공업의 원료는 어데서 생기겠는가?

한마디로 말하여 나는 오늘날의 농업 로동은 가장 영예로운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농업 로동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없어서는 안될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민청 총회에서 순애 동무가 경훈 동무에게 준 충고가 아주 옳았다고 본다. 경훈 동무는 쓸데 없는 허영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가 순애 동무와 손 잡고 영예로운 농촌의 선구자로 될 것을 심심히 권고한다.

함남 함주군 대성리
농업 협동 조합
주 례 균

참된 사랑이란?

참된 사랑이란 청춘 남녀간의 단순한 향락을 의미함도 아니요 더우기 따뜻한 봄날의 산보만을 의미함도 아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조국의 미래와 번영을 위한 참된 로력과 투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생활 감정이며 서로 깊이 리해하고 도와주며 호상간의 결함을 동지적으로 깨우쳐 주는 깨끗한 우정에 기초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사랑하는 사람의 진정한 권고도 뿌리치고 멀리 고향을 떠나 또다시 이중의 사랑을 맺기 시작한 경훈 동무의 경솔한 행동이나 더우기 단순한 물욕과 들뜬 허영심으로써 자기의 애인으로 하여금 크림이나 화장 비누 등 국가 상품들을 훔쳐내게 하는 영옥 동무의 그릇된 태도를 참된 사랑이라 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것은 참된 사랑이 될 수 없다. 그와 같은 영옥 동무나 경훈 동무의 속된 애정관에 비한다면 순애의 마음은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가!

그는 지극히 경훈 동무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농사 일에서 건달을 부려온 경훈 동무의 비로력적 태도에 대하여 눈물 겨운 충고도 주었으며 민청 회의에서 용감하게 비판도 하였던 것이다.

나는 나의 체험이 영옥 동무와 경훈 동무를 위해 다소의 도움이나마 되였으면 한다. 나는 지난해 우리 마을에 모내기를 협조하려온 녕변 영예 군인 학교의 한 학생을 알게 되였다. 그는 조국 해방 전쟁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자기의 한쪽 팔을 잃었었다. 그러나 그는 일도 남못지 않게 잘 하였으며 짬만 있으면 책을 펴들고 공부하는 것이였다. 그는 학교를 졸업하면 농촌으로 오겠노라 하였다. 나는 이렇듯 병신된 몸으로도 당이 부르는 전초에 헌신하려는 참된 그의 량심과 신념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청춘의 거울을 발견하였고 로동과 생활에 대한 그의 락관적 태도로 하여 나의 심금은 울리였다.

그리하여 나는 그이와 약혼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는 친척들의 반대와 일부 동무들의 조롱도 있었으며 몇날 몇밤 잠 못드는 나 자신의 심각한 고민도 있었다. 그러나 진실

지 상 토 론

한 조국의 딸이라면 어찌 그런 용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때 나에게는 달리 행동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애정이라 믿었기 때문이였다. 그이가 올가을에 학교를 졸업하면 우리는 인차 결혼식을 치루고 함께 협동 조합에서 일 할 예정이다.

영옥 동무! 우리들 청춘은 동무가 참된 사랑의 길을 따를 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경훈 동무와의 관계를 깨끗이 끊으십시요. 동무가 허영을 버리고 진지한 로력속에서 삶의 기쁨을 느끼게 된다면 그때는 참된 사랑의 불꽃이 동무의 가슴에서 타번지게 될 것이며 동무는 훌륭하고도 건전한 청년과 행복한 사랑을 맺게 될 것입니다.

경훈 동무! 순애 동무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 가십시요!

평남 개천군 준혁리 차 봉렬

위급한 순간!

— 영국에서 —

(중국《만화》지에서 전재)



사회 발전 이야기 (4)



인류는 식물을 채집해 먹는 오랜 생활을 통하여 풀 뿌리에선 새 움이 트며 나무 열매에선 새 싹이 돋아 난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이때로 부터 인류는 식물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첫 분업 즉 자연 분업이 발생한 이후 식물을 수집하는 일은 주로 녀자들이 맡아 하였다.

맨 처음에 인류는 나무 열매나 풀씨를 땅 우에다 그대로 뿌리는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다. 결과 뿌린 씨들이 말라 버리거나 또는 새들이 쪼아 먹어 버리군 하였다. 그리고 요행 싹이 돋아 난다 해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여 많은 수확을 내지 못하였다.

땅을 파고 씨를 뿌리며 김을 매는 방법을 알기 까지에는 많은 세월이 흘렀다. 당시 인류는 유치한 도구 즉 뾰족하게 깎은 몽둥이나 돌끝으로 땅에 구멍을 뚫고 씨를 뿌렸고 손으로 김을 매였다.

이러는 동안에 인류는 비로소 돌이나 나무로 농사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 쓸수 있게 되였다.

인류는 농사 짓는 방법과 함께 실을 낳는 기술도 알게 되였다. 인류가 처음에 사용한 실은 삼으로 만든 것이였다. 인류는 가락추를 리용하여 삼으로 실을 만들었는데 그 실은 주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드는데 사용되였다.

그러나 농업과 목축업이 발전함에 따라 인류는 면화와 양털로써도 실을 만들었는데 나중엔 그것으로 천을 짜기도 하였다.



인류는 원시 사회의 말기에 와서는 금속을 녹이는 기술도 알게 되였다.

그리하여 인류는 석기로 부터 금속으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게 되였다. 즉 인류는 산’불에 의하여 돌에서 녹아내린 쇠’물이 식어서 굳어지는 것을 보군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험을 거듭 체험하는 동안에 그들은 광석을 분간해 낼 수 있게 되였던 것이다. 이때로부터 그들은 광석을 녹여서 금속을 만들며 금속으로 로동 도구를 만들어 썼다. 처음에 사용한 금속은 녹기 쉬운 구리였고 후에는 청동과 철도 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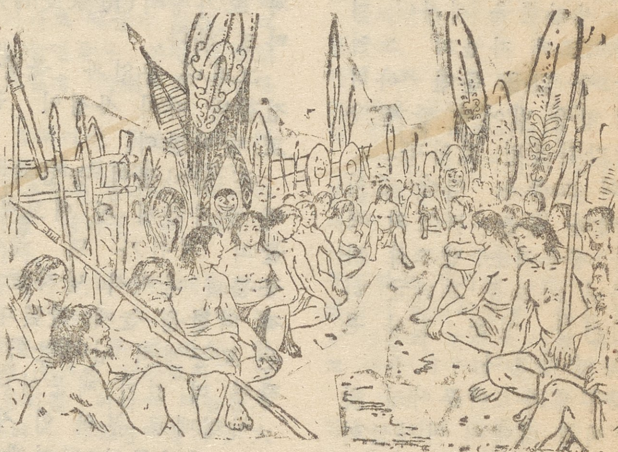


그것은 로동 도구가 유치하고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한 관계로 인류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었고 따라서 사나운 짐승들의 습격을 막아 낼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원시 사회에서는 인류는 서로 힘을 합하여 일하

며 공동으로 생활하였다. 그러나 한편 유치한 로동 도구를 사용하는 조건하에서 너무 많은 인류가 한데 모여서 생활할 수는 없었다.

때문에 인류는 처음에는 수십명씩 되는 적은 집단을 이루고 살았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모든 생산 수단을 공동 소유로 하고 공동으로 일하였고 생산물도 골고루 나누어 가지였다.



생산 수단을 공동 소유로 하고 공동으로 일하며 생산물도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것이 원시 사회에서의 사람들의 호상 관계의 기본 특징이였다. 이와 같이 원시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관계가 완전히 평등하였다. 즉 당시에는 사유 재산도 착취도 없었고 따라서 계급도 국가도 없었다. 이것은 먹을 것을 찾아 류랑하던 《원시적 군》의 시기에는 물론 씨족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씨족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씨족의 전체 성원이 모인 씨족 회의에서 그 문제가 토의되고 결정되였다. 따라서 자기 씨족이 다른 씨족의 침범을 당할 경우에는 씨족의 전체 성원이 단결하여 그들과 싸우군 하였다. 씨족 공동체가 형성된 후에 매개 공동체들에서는 지도자들이 선거되였다.

공동체의 지도자에는 추장과 승려가 있었다. 그리고 다른 씨족과의 싸움이 일어날 때에는 군사령관이 선거되였다.

그런데 씨족 공동체의 지도자로는 가장 경험이 많고 용감한 사람들로써 씨족 회의에서 선거되였다. 선거 받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일을 잘못할 경우에는 언제던지 소환되고 다른 사람들이 지도자로 선거되였다.

추장과 승려는 씨족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당시 사람들은 자연을 무서

위하며 그를 숭배하였다. 그것은 자연 현상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한 탓으로 생산의 성과가 거의 전'적으로 자연에 의하여 좌우되였기 때문이다.

이런데로 부터 이러저러한 미신과 종교 사상이 생겨났고 따라서 요술 같은 것도 생겨났다.

즉 당시 사람들은 제사나 기도를 드림으로써 자연의 노여움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힘을 빌어서 잘 살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짐승 잡이를 떠날 때나 혹은 자연의 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자연에 제사나 기도를 드리군 하였는데 이러한 일을 맡아 본 것이 바로 승려였다.

씨족 공동체가 이루어진 첫 시기에는 씨족 내에서 녀자들이 지도적 역할을 놀고 있었다.

우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시기에 남자들은 주로 짐승과 고기 잡이를 하였고 녀자들은 식물을 재배하는 일들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로동 도구가 극히 유치한 탓으로 남자들이 잡아온 짐승이나 고기만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해 나갈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씨족들의 생활은 거의나 녀자들이 생산하는 물건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런데로 부터 당시 씨족 내에서는 녀자의 집에 남자가 장가 들었으며 어린애는 어머니의 성을 따랐고 모든 면에서 녀자가 주인 노릇을 하였다.

바로 이와 같은 씨족을 가르쳐 모가장적(母家長的) 씨족이라고 한다.

그러나 농업과 목축업이 발전함에 따라 사정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즉 남자들이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게 된 때로부터 남자들의 지위가 더 높아졌으며 공동체 내에서 남자들이 지도적 역할을 놀게 되였다. 그것은 로동에서 남자들이 노는 역할이 더 컸기 때문이다.

이런데로 부터 이 시기에 와서는 녀자들이 남자에게 시집가게 되였다. 따라서 어린애들도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였다.

이리하여 모가장적 씨족 제도는 새로운 부가장적(父家長的) 씨족 제도로 바뀌여졌다.

정 정

《청년생활》 3호 8페지 첫단 상단으로부터 4행 《망독하기로 하였습니다》는 《망독하기로 하였으나》의 오식이 였으므로 정정함

영광의 대오에서

김 영 수

가난한 농사'집인 창덕이네는 왜놈들의 학대와 지주들의 등'살에 못이겨 정든 고향땅을 버리고 낯서른 만주로 이사갔다.

그러나 만주에서도 그들의 가난한 살림은 마찬가지였다. 일제는 중국 침략을 기도하여 소위 만주 사변을 일으킨후 거기로 처들어 갔다. 그리하여 토착 농민들과 조선 류랑민들을 더욱 모질게 착취하고 억압하였다.

그 중에도 창덕이네 집은 왜놈들의 감시와 학대를 더 심하게 받았다. 그것은 3. 1 운동때 창덕이 아버지가 단천 경찰서를 때려부시는 선두에 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덕이 아버지는 왜놈들한테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혁명 동지들과 련계를 맺은 후 김 일성 원수 항일 유격 부대에 참가했다. 그 후 조국 광복회를 위하여 왜놈들과 용감히 싸우다가 1932년 대황거우(大荒溝) 전투때 희생되였다.

아버지가 빨찌산으로 들어간 후 창덕이네 두 모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생을 당했다. 항일 유격대에 참가한 가정이라 하여 왜놈들은 창덕이네 집과 량식을 몽땅 불살라 버리기 까지 하였던 것이다.

허지만 창덕이 어머니는 남편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창덕이를 훌륭한 조선의 아들로 기르는 것을 크낙한 보람으로 여겼으며 락으로 삼았었다. 그리하여 1933년 초봄에 그마저 훈춘 헌병대에 끌려 가서 여러달 동안 모진 욕을 보다가 끝내 옥사하고 말았다.

창덕은 고아로 되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벗들은 혁명가의 피를 이어 미래의 애국 투사로 자라날 귀중한 이 꽃봉오리를 세상의 풍파 속에 값없이 지도록 버려 두지는 않았다.

열세살인 어린 창덕을 채아저씨가 맡았다. 그는 3. 1 운동때 창덕이 아버지와 손을 맞잡고 일제와 용감히 싸운 분이며 김 일성 원수의 항일 유격대 대원이였다.

창덕은 채아저씨의 슬하에서 몇달 동안 보냈다. 아저씨는 글도 가르쳐 주고 친아버지나 다름없이 창덕이를 보살펴 주었다. 허지만 창덕은 부모없는 자기가 어쩐지 외롭게 느껴지기 마련이였고 깊은 한밤'중에도 잠들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눈물로 밤을 새우는 날도 있었다.

어느날 밤이였다. 채아저씨는 집을 나간지 사흘이 지났으나 아직도 돌아 오지 않았다. 그새 왜놈의 경찰들이 매일 처럼 와선 집을 발칵 뒤지고 가장집물을 몽땅 털어 가면서 소동을 일으켰었다.

창덕은 집뜰안에 서서 가을 바람에 우수수 설레이고 있는 백양 나무 곁으로 갔다. 그리고 그 밑둥에 기대서서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치여다 보았다. 그 쟁반 같은 달속에선 자기가 지난날 저이또래들로 부르던 —달아, 달아 밝은 달아!

하는 처량한 목소리가 금시 들려 오는 것만 같았다. 그러자 생각은 총총한 별을 하나 둘 건너 타고 그

리운 고향으로 달음쳐 가는것이 였다.

조선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묘가 있었다. 그리고 자기가 봄과 여름, 가을철, 작은 낚시'대로 엄지 손'가락만한 가물치를 잡아내던 개울물도 있었다. 비록 초라하지만 추운 동지 섣달에도 온 집안 식구들의 몸을 포근히 감싸 주던 단칸 초가도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왜 이 만주땅에서 돌아가시게 되였는가? 그것은 왜놈들과 지주놈들 때문이 아니였던가?

창덕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원쑤들을 쳐부시고 세상에서 가난과 굶주림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을것만 같았다. 이러니 어린 그의 머리에 피여나는 생각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뿐이였고 가슴에 맺히는 것은 설음과 눈물 뿐이였다. 그는 자기가 좀더 크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골을 파가지고 고향으로 몰아 가리라 마음먹었다.



창덕은 끝내 소리를 내여 울고 말았다. 이때 그의 들먹이는 어깨를 가볍게 어루만지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언제나 처럼 얼굴에 가벼운 웃음을 띠고 있는 채아저씨였다.

—창덕아, 너 왜 우니, 응?

—…

창덕은 말이 없었다. 채 아저씨가 재차 물어서야 그는 방금 생각하던 고향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아저씨 위험해요. 순사놈들이 또 올지 모르겠는데…

하고 그가 없는 동안의 소동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아저씨의 얼굴은 여전하였다. 그는 그런 일에 쯤 놀라워 하지 않는다는 듯이 태연한 어조로

—그래 그놈들이 무서워 울었냐?

하고 물었다. 창덕은 더는 자기의 심정을 말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래 낮윽하고도 반울움 섞인 말로 그것을 떠듬떠듬 이야기하였을 때 채아저씨가 품속에서 꺼낸 것은 불룩한 봉투였다.

—창덕아, 이게 뭔지 아냐?

하면서 그가 자기의 손'바닥에 쏟은 것은 꺼무스름한 흙'가루였다. 창덕의 얼굴엔 놀라워하는 빛이 얼핏 떠올랐다.

채아저씨의 얼굴은 엄숙해졌다. 그는

—이 흙을 잘 봐라. 너의 고향 흙과 뭐이 다른가?

하면서 그 내력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 흙은 창덕이 아버지가 고향을 떠날때 논에서 한 줌 집어온 것이였다. 그것을 운명할 때 채아저씨에게 넘겨 주면서 창덕이가 자라서 항일 유격대 소년 선봉대 단원으로 입단하는

날 자기의 유언과 함께 전달해 달라고 하였던 것이다.

—너의 아버지는 우리들의 원쑤가 왜놈들이라는 걸 너에게 똑똑히 가르쳐 달라고 내께 간곡히 부탁하였다. 그리고 너를 보고는 장차 용감한 유격대원이 되여 원쑤들과 싸워 언제나 이기라고 하셨지. 그런데 넌 고향의 그리움으로 울고만 있냐? 생각해 봐라. 네가 지금 고향으로 간다고 하자. 거기에선 왜놈들이 여전히 세도를 부리고 있는 판인데 네가 입에도 풀칠이나 변변히 할 줄 아냐? 아니다. 창덕아,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 잘 살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조선 사람들의 힘으로 왜놈들을 쳐부시는 때만이 있을 수 있는 게다. 그리고 넌 우리의 힘이 원쑤들만 못한것처럼 생각하는 데 그것도 잘못이다. 이제 네가 소년 선봉대에 들어 가면 우리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될게다…. 아버지의 뜻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채아저씨의 이야기는 창덕의 가슴에 파고 들었다. 흙을 다시 봉투에 넣은 것을 받아쥔 창덕의 손은 떨리였다. 그는 조국을 열렬히 사랑한 아버지의 피가 자기의 온몸에서 들끓고 있는 것을 느끼였다.

이날밤 창덕은 채아저씨를 따라서 유격 지구로 들어 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로 소년 선봉대에 들었다. 이것이 바로 1933년 가을이였다.

창덕은 소년 선봉대에서 공부도 하는 한편 유격 부대의 전투를 위한 통신 련락 임무도 맡았었다. 그는 고아로 혹은 거지 아이로 가장하여 적구를 떠돌아 다니면서 적정을 탐지도 하고 유격 부대 호상간의 련락도 보장했었다.

이러면서 창덕은 차츰 정찰원으로 자라나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벌써 그 이름을 유격대원들 가운데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였다.

그것은 1934년 8월이였다. 김 일성 원수 항일 유격 부대들은 일본군이 소위 천년 요새라고 떠버리면서 장차 쏘련 침공을 위해 쏘만 국경에 구축한 포대와 군수 창고를 습격할 작전을 계획하였다. 이 작전의 총 지휘관은 최 대장이였다. 적의 포대와 군수 창고는 진안령 태평촌(鎭安嶺, 太平村) 동쪽 산마루에 있었다.

창덕은 벌써 한달전부터 이 습격전을 위한 적정 탐지 정찰원으로 이 지구에 옮겨 왔다. 창덕은 우정 벙어리 시늉을 하면서 허리에 깡통을 차고 적 종심 깊이로 들어 갔다.

태평촌은 소란하였다. 왜놈의 군대의 략탈은 심하였다.

어느 집이나 할것 없이 놈들의 행패를 당해 그 소요함이란 말이 아니였다. 창덕은 태평촌에 들어온 첫날 이집 저집 찾아 다니면서 깡통을 뚜드렸다. 어느 집에선 선선히 밥찌꺼기를 내여 주기도 하고 어떤 집에선 짜증을 내면서 창덕을 문밖으로 내쫓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결코 창덕에게 욕사발을 퍼붓는 일은 없었다. 그들이 저주하는 것은 하루 바삐 왜놈들이 망했으면 하는 한식과 울분의 목소리였다.

이튿날 식전에 창덕은 마을 맨끝의 초라한 오막살이로 찾아 갔다. 그에게는 필경 이런 자기의 고향집과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야 말로 왜놈들에 대한 울분이 더 크리라는,

그래서 포대와 군수 창고에 대한 어떤 재료를 쉽게 이야기 들을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갔기 때문이였다. 뿐만 아니라 소년 선봉대에서 공부할 때 정찰시엔 언제나 그런 가난한 집에 의거해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 터이였던 것이다.

창덕의 추측은 과연 맞았었다. 그 집엔 중년 과부와 열살이 되나마나한 딸만이 있었다. 아주머니는 병중인지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이고 부엌에서 불을 때느라 연기를 젖은 안개처럼 피우고 있었다. 창덕이가 구석을 했을때 문을 열고 나온 것은 딸애였다. 그리고 그를 뒤따라서 인차 아주머니가 나왔다.

—아이고 이걸 어떻거우?

울상이 되여 내뱉듯이 말하는 그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는 창덕을 거저 돌려 보내지 않고 들어 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금 한탄하는 것이였다.

—글쎄 그놈들이 떡을 해내라 해서 밥지을 쌀도 없는데 식전부터 이야단이 아니유, 좌우간 앉아 기다리소! 그놈들한테 한두개 못가져 가더라도 내 드리겠으니…

창덕은 더는 벙어리 시늉을 해서는 오히려 일이 잘 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하얀 송편을 반사발이나 들여 왔을 때 그중 한개만 집고 나서

—이거면 돼유. 아주머니네두 자셔야지요. 근데 떡도 다 바쳐야 하나요?

—떡 뿐이유. 술에, 돈에 그놈들 요구 안하는게 어디 있다구!

—그걸 다 어떻게 해대요?

—그러니 어쩌겠나! 하지 않으면 당장 목숨이 달아나겠는걸! 그래 있



는 그릇가지나 옷가지는 몽땅 팔아서 해대는수 밖에…

—떡은 어디로 날라다 줍니까?

—그럼 날라다 까지 대접해야지, 오늘은 내가 동내것을 모아다 포대까지 가져가야 하겠는데 내가 아파서 한 걸음도 걷지 못하겠는걸…어쩌면 좋겠는지!

—아주머니 그건 걱정마세요. 제가 져다 주지요. 길만 알면…

얼마후에 창덕이는 지개를 지고 이집 딸애를 앞세우고 포대로 향하였다.

마을에서 깊은 산'골짜기로 뚫어 가노라면 산'골짜기는 동쪽으로 멀리 뻗어나가고 있었다. 창덕이와 처녀애는 왼쪽 산'줄기를 타고 오솔길로 해서 걸었다. 이윽하여 그들은 뾰족한 산등성이에 올랐다. 여기에 세멘트 콩크리를 한 포대가 있었다. 어머니를 따라서 몇번 와 본적이 있는 처녀애는 창덕이가 포대쪽으로 가자고 하는 것을 말렸다.

—거긴 못들어 가요! 저 아래 창고에 갖다 줘요!

그러나 창덕은 우정 고집을 세워

—괜찮아 가까운데다 주고 가지뭐!

하면서 포대쪽으로 가까이 갔다. 그러자 보초 녀석이 팩! 하고 무어라고 고래 고래 소리쳤다. 그러나 창덕은 못들은척 하고 포대의 문 있는데로 갔다. 이 바람에 창덕은 보초에게 뺨을 한대 맞고야 말았다. 창덕이가 마침 지개를 세워 놓은 후였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벽함지는 땅에 엎어질번 하였다.

창덕이는 손으로 얼굴을 싸쥐였다. 그리고 뺨이 화끈 달아 오는것을 꾹 참고 손'가락 사이를 차츰 벌려 화구가 어디에 몇개 있으며 포대의 출입문은 몇개이고 그 생김은 어떤가 하는 것을 유심히 살피였다.

한참후에 창덕이는 지개를 지고 다시 처녀애를 따랐다. 보초녀석은 처녀애를 보고 주먹으로 삿대질하면서 소리치는데

—너 다시 누구를 이리로 데려 왔단 혼난다!

하는 뜻의 일본말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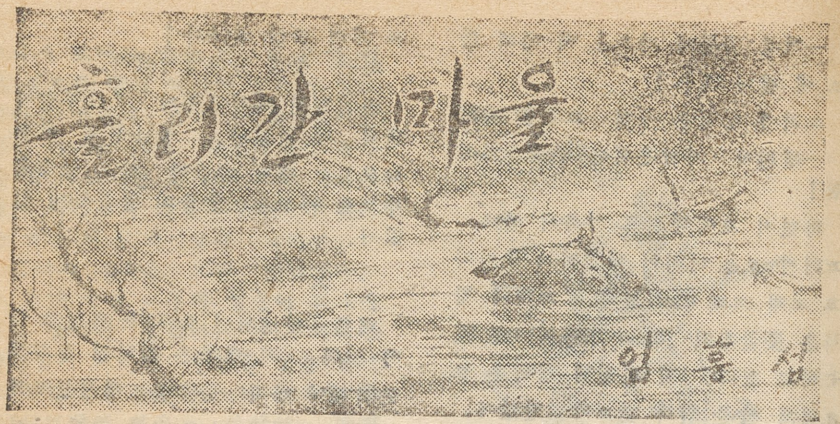
산기슭엔 짜작나무며 봇나무들이 들어 차 있었다. 통나무로 학교 교실처럼 길게 나란이 지은 군수품 창고는 바로 그 숲속의 한복판에 있었다.

× ×

며칠후에 《천년 요새》는 하늘로 날아 났다. 최 대장은 창덕의 정찰에 근거하여 다시 유능한 대원들로써 세밀한 정찰을 시킨 다음 작전을 개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습격전의 승리는 창덕의 기발한 역할과 떼여서는 생각할 수는 없었다.

창덕이는 그후에도 매 전투 때마다 훌륭한 정찰원으로 싸웠다. 그리하여 1935년 영예로운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 부대의 공청 대렬에 들어 서게 되였던 것이다.





(5)

여름의 해'볕은 쨍쨍 쪼였다.

조금씩 흐르던 시내'물도 이제는 바닥에 째각째각 말랐다. 별장 앞 호수는 날마다 뜨거운 볕에 끓었다.

죄 없는 고기 새끼들이 하이얀 배때기를 하늘에 향하여 여기저기 떠있고 길'가의 나무와 풀들은 끓는 물에 삶아 낸 것처럼 시들시들 생기를 잃었다.

가물은 심하였다. 한달 전에 비맛을 못본 모'자리판은 바짝 말라 쩍쩍 갈라 지고, 모포기는 성냥알을 대기만 하여도 활활 타버릴 것만 같았다.

구름이 한 점 한 구석에서 떠돌고 바람 끝이 조곰만 방귀를 뀌여도 이 마을 사람들은 손벽을 치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하늘은 한달이 넘도록 죄없는 농민들을 절망과 불안 속으로 잡아 넣고 말았다.

최 부호도 비를 몹시 기다렸다. 수만 정보의 대 지주인 그는 자기의 농사 수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별장 앞 호수에도 물이 얼른 가득히 고였으면 하고 바랐다.

100도가 가까운 지독한 더위가 사흘 동안이나 계속되던 어느날 저녁 때였다.

하늘은 갑자기 시꺼먼 장막 속에 파묻히고 말았다. 이윽고 주먹만큼씩한 비'방울이 떨어지더니 얼마가 못되여 창'대 같은 비'줄기가 좍좍 내려 쏟아졌다.

비는 그날 밤에도 꼭 그대로 쏟아졌다. 번개가 번쩍번쩍, 뢰성이 하늘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한껏 긴장된 위험한 공기 속에도 이 마을 사람들은 논'고를 보느라고 비를 뚜드려 맞으며 뜬 눈으로 날을 밝히였다.

비는 그 이틀날 저녁 때까지도 쉬지 않고 쏟아졌다.

황토물은 시내 언덕이 넘을 만큼 넘실 넘실 차며 밀며 세차게 흘러내린다.

비는 자꾸 퍼부었다. 호수에 물은 자꾸 붓기 시작하였다.

사흘 동안을 쉴새 없이 퍼붓던 비는 나흘째 밤에는 더욱 심하였다.

창'대 같은 비'줄기, 캄캄한 깊은 밤'중, 천병 만마가 내달리는 것 같은 물 흐르는 소리, 번쩍이는 번개, 우르르 하다가는 어느 구석에서 딱하는 강력한 음향! 무시무시한 이 정서, 이 자연의 포위 속에 이 마을 사람들은 쥐죽은 듯이 엎디였었다.

비는 새벽에 닭이 울 때까지도 그치지 않았다.

—방축이 터지지 않을가?

고 서방은 모기, 빈대, 벼룩이 쿡쿡 찌르는 갈'자리 방에서 벌떡 일어나서 혼자 중얼거렸다.

그는 무엇을 생각한 것처럼 캄캄한 논'두렁 우로 비'줄기를 두드려 맞으며 달음질쳤다.

이윽고 그는 허둥지둥 뛰여 돌아오며 고함을 질렀다.

— 사람들아! 일어나라! 방축이 터지겠다!

비'소리에 섞인 그의 고함은 어렴풋이 이 마을에 물'결쳤다.

그는 구장네 집에 가서 징을 들고 나와 웅웅 울렸다.

남녀 로소 2백 여 명은 쏟아지는 비'줄기를 두드려 맞으며 캄캄한 골목에서 솥, 단지, 롱짝, 보통이들을 져 내였다.

—사람들아! 어서 가자! 산으로 산으로! 어름어름하다가는 물 속에 파묻힌다…

고 서방이 2백 여 명을 대리고 뒤'산으로 피난하였을 때는 포악한 운명의 피마가 아가리를 벌리였던 것이다.

별장 앞, 호수가 방축을 자꾸 넘으며 롱짝 같은 시내'물은 방천을 헐고 논'두렁을 부시고 이 마을을 향하여 사자 같은 아가리를 벌리는 것을 그들은 희미한 새벽에야 비로소 알게 되였다.

물이 넘어 흙을 깎아 내리던 방축은 한가운데가 뚝하면서 갈라지고야 말았다. 그 순간이다. 산'더미 같은 물'결은 게딱지 같은 집들을 한숨에 네개나 넘어뜨렸다.

—아이고 어떻게 하나! 집이 떠나려 가네… 아…이…고…

녀인네들은 모두 복장을 치며 울었다. 아이들도 모두 따라 울었다. 비는 자꾸 퍼부었다.

번개가 번뜩이고 뢰성은 더욱 하늘을 쪼갤듯 요란하게 울었다.

탁류는 조금도 사정 없었다.

새벽이 훤히 밝았을 때에야 떠내려간 집이며, 쓰러진 집이며, 탁류가 방안까지 스쳐간 집이며, 울타리가 부서져서 떠내려간 집이며, 모'자리판과 뾰족거리던 발곡식의 흙이며, 스쳐간 것들의 참담한 광경이 고 서방을 비롯한 젊은 찬구들의 가슴에 불을 부쳤다.

이 마을 사람들이 더 한층 놀란 것은 갈'자리 밑에 품팔아 번 돈 30전을 가지러 갔던 어떤 늙은 할머니가 미처 나오기도 전에 방축이 터져서 탁류 속에 무참히도 흘러 내려간 사실이다.

숲속 높은 별장은 털끝도 까딱 없었다.

덩그렇게 위엄을 빼고 흘러간 마을의 참경을 비웃고만 있었다.

(6)

찌푸르르하던 날씨가 사흘이 지난 뒤에야 확 터졌다.

최 부호는 흘러간 이 마을 사람들에게 대하여 털끝만한 동정도 없었다.

방축이 터져 마을이 흘러간 뒤에 그는 어른거리지도 않았다. 다만 뚱뚱보 별장직이 령감이 별장을 지키고 있었다.

흘러간 집터와 쓰러진 집터에다 말뚝을 치고 거적으로 하늘을 가린 이 마을 사람들은 속절없는 새 거지가 되였다. 떼거지가 되였다. 녀인네들은 어린 것들을 앞세우고 바가지를 들고 나섰다.

사나이들은 모기에 지독히 뜯기고 나서 그래도 새벽부터 먼 마을로 품팔러 다녔다.

탁류 속에 떠내려간 모'자리판과 방축, 논'두렁, 방천이 무너져서 흙 속에 파묻혀버린 모'자리판들은 흉년을 똑똑히 말하고도 남았다.

고 서방은 여러가지로 생각던 끝에 친구 몇몇을 데리고 일본에라도 가서 석탄이라도 파 볼가 하였다.

그리하여 주재소에 려행 허가를 원해 보았으나 순사 부장은 랭정한 태도로 허가해 주지 않았다.

녀인네들은 10리나 되는 읍으로 일'거리를 찾아 헤매였다. 그러나 일'거리는 없었다.

그들은 산비탈과 밭두렁에서 풀뿌리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기였다.

사나이들은 먼 마을로 초벌 김매기와 보리 타작하러 다니였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겨우 목숨만 살아 내려 왔다.

(7)

터졌던 방축이 감쪽같이 다시 쌓이고 방축안 호수에 새파란 하늘이 거꾸로 비쳤을 때는 벌써 추석을 앞둔 가을이였다.

높직한 별장에서는 날마다 거문고, 가야금이 가늘고 높은 계집의 목소리 속에 섞이여 이 마을의 산'골을 울리였다.

재'빛 안개가 자욱히 끼고 풀끝에 이슬이 아롱하는 아침, 고 서방은 콩밭 모퉁이에서 곰방'대를 빨다가 한 포기에 열 꼬투리도 못 열은 콩 포기에서 시선을 피하였다. 그의 시선은 다시 패지 못할 벼포기로 옮겨 갔다.

—흥, 흉년이다! 방축이 터져서… 마을이 내려가고… 제길할 이놈의 것…—고 서방은 본능적으로 주먹을 단단히 쥐였다.

그리고 밤마다 친구들과 모여서 이야기하던 모든 것들을 한번 되풀이하였다. 그는 갑자기 일종의 쾌감과 승리감을 느끼면서 한번 더 부르짖었다.

—그렇다! 내게는 큰 힘이 있다…

추석이 왔다.

최 부호의 추석놀이는 별장 락성식 겸 굉장히 버려졌다.

자동차가 아침부터 이 별장까지 몇번이나 오고 갔는지는 신작로에 일어난 먼지만 보고도 넉넉히 헤알릴 수 있었다.

별장 마당에 만국기가 펄렁거리고 장구 소리, 노래 소리 굉장히 났을 때엔 아이들은 모두 몰려 가서 구경들을 하였다.

그러나 얼마 못되여 다시 쫓겨 왔다.

《추석》, 《명절》이 상야릇한 이 명자가 가진 봉건적 관습은 고 서방을 비롯한 젊은 사람들의 땀에 젖은 삼배 등거리와 꾹꾹 찌르던 흙 잠뱅이를 벗기고 새로 빤 무명 중의 적삼을 입히였다.

컬컬한 탁백이 한잔에 짤짤한 명태쪽이나마 오락과 향락에 주린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둘도 없는 위안'거리였다.

점심 때가 훨씬 지난 뒤에 별장의 유흥은 훨씬 가경으로 들어 갔다.

호리호리한 계집의 날씬날씬한 허리를 기름진 양돼지같은 사나이들이 얼싸 안고 벌룽벌룽 춤추는 꼴은 이 마을의 녀인들을 한껏 놀래게 하고도 남았다.

환락의 붉은 노을을 보낸 별장은 다사 은'빛 같은 보름'달을 맞았다.

고 서방과 젊은 사람들은 오늘이야말로 마음이 이상하게 흥분되였다.

자동차가 또 왔다—한참만에 네대가 꼬리를 물고 소라소리 높이 지르며 별장 앞에다 여러 계집과 많은 사나이들을 로했다. 경찰 서장과 군수와 도 평의원들도 자동차에서 뛰여 내렸다.

이윽고 달'빛 잠긴 호수에서는 뽀트놀이가 시작되였다. 고 서방과 젊은 사람들은 신작로'가 주막으로 밀쳤다.

주막의 탁백이는 이 사람들을 더욱 흥분케 하였다.

한잔 술에 얼취한 이 사람들은 징, 꽹과리, 북, 장구를 울려 온 마을 안을 요란스럽게 했다.

《쿵매캥 쿵매캥, 쿵쿵쿵매캥》이런 느린 가락에서 《캥매 캥매 캥매 캐캥, 캥매 캥매 캥매 캐캥》이런 잦은 가락으로 옮겼을 때는 아이들, 늙은 이, 녀인네들이 모두 몰려 나왔었고 젊은 사람들은 어깨와 어깨, 팔과 팔다리와 다리가 한데 어울려 뭉치며, 뛰며, 춤추며 《상사뒤여—》를 부르기 시작했다.

—자! 이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 보소! 오늘 우리 멋지게 한번 놀아 보자꾸나!

고 서방이 커다랗게 웨쳤다.

—암! 본때 있게 놀자꾸나! 오늘은 별장 모인 자들의 추석만 아니다. 우리네 추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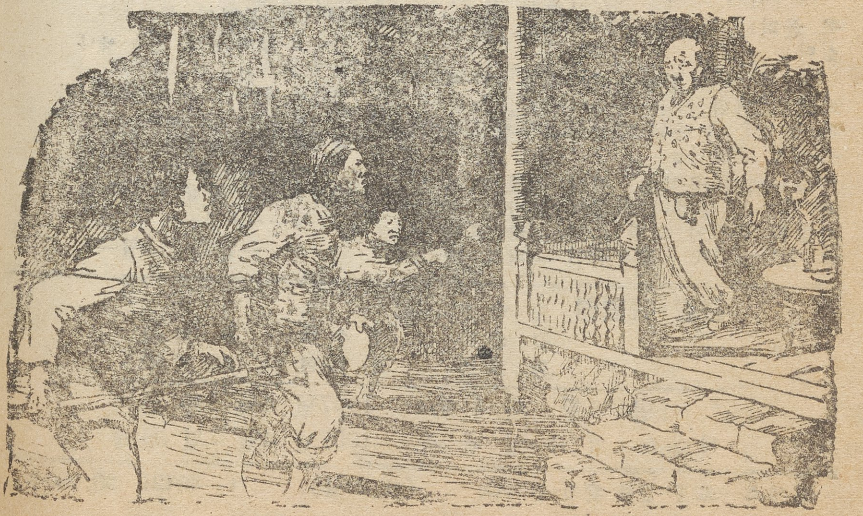
—암, 그렇구 말고…

—어디 제놈들 잘 노나 우리가 잘 노나 해보자꾸나…

모여든 마을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런 소리들이 뛰여 나왔다.

고 서방은 신이 나서 절구통을 엎어 놓고 선뜻 올라 서더니 모여선 사람들을 향하여 커다랗게 또 웨치기 시작했다.

—자! 여보소들! 오늘 우리 최부자 낯판대기 좀 보러 갑시다! 재란 놈 별장 때문에 우리네 마을이 흘러 갔는데두 본둥 만둥하는 개만



도 못한 낮판대기에 무얼 칠해야 되겠습니까—

—똥 바가지를 씌워야지…

—똥 바가지를 씌우면 뭘해! 그 놈을 붙잡아 놓고 단단히 족치자꾸나…

—암, 족쳐야지! 별장 기둥두 뽑아 버리구… 불살러 버리구…

—자! 여보게들 가세! 한꺼번에 몰려 가세!

—자! 다들 가세!

모여온 사람들은 이렇게 흥분된 감정을 참지 못하고 한마디씩 웨치며 우렁차게 《상—사—뒤—여—》를 부르기 시작했다.

고 서방이 앞장을 서서 노래를 한마디 먹이고 나면 100여 명 뭉치는 《상—사—뒤—여—》를 련해 불렀다.

어깨와 어깨를 겨누어라
상—사—뒤—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
상—사—뒤—여
열 두달 하루도 안 노는데
상—사—뒤—여
우리네 살림이 왜 이런고
상—사—뒤—여

상사뒤여 뭉치는 온 마을을 한 바퀴 돌더니 이윽고 방축 우로 올라섰다.

달'빛 밝은 별장 란간에는 술파계집에 취한 많은 사나이들이 노래와 웃음을 토하고 가야금과 장구를 괴롭게 울렸다.

상사뒤여 뭉치는 방축 우를 거쳐서 별장을 향하여 쳐들어 갔다. 고 서방의 앞잡이 노래가 더 한층 힘차고 높았을때는 상사뒤여 소리도 더 한층 우렁차고 높았다.

최 부호 방축이 콱 터져서
상—사—뒤—여
우리네 마을이 흘러 갔네
상—사—뒤—여
별장과 호수는 뉘덕인가
상—사—뒤—여
우리네 피땀이 뭉쳐서 됐지
상—사—뒤—여

계집의 한편 무릎을 베고 눈을 지긋이 감고서 기름진 배'가죽을 슬슬 만지던 최 부호는 갑자기 가까워 오는 상사뒤여 소리에 놀래여 정신을 차렸다.

상사뒤여 뭉치는 어느덧 별장 마당 앞까지 쳐들어 갔다.

란간 우의 녀석들은 허둥지둥 옷들을 주어 입고 슬금슬금 뺑소니를 치기 시작했으나 최 부호는 대노한 표정으로 란간에 그대로 버티고 서서

—이게 무슨 무례한 짓들이냐? 남의 별장 앞에 왜 이리들 몰려 오는 거냐?—하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상사뒤여 뭉치에게는 최 부호의 고함 소리가 들릴리 없었다.

상사뒤여 뭉치는 어느틈에 별장을 빽 둘러 싸면서 더 한층 우렁차게 상사뒤여를 불렀다.

이대로 압제 받고 살줄 아나
상—사—뒤—여
우리네 뭉친 힘은 못 꺾느니라
상—사—뒤—여—
별장이 제 별장될줄 아나
상—사—뒤—여
죽어도 우리 할일 하고야 말세
상—사—뒤—여

—1925년 2월—

편집 위원회 김 학 연(주필)
김 상 민 김 수 백 박 춘 실
양 동 섭 조 채 현 현 영 호

청년 생활 제 4 호 1957년 4월 1일 인쇄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1957년 4월 7일 발행

인쇄소—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값 20원) ㄱ—40421 50,000부

친애하는 독자 동무들에게

독자 여러분! 잡지《청년 생활》은 새 해에 들어와서 벌써 네호째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동안 동무들은 잡지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보내 주시였습니다. 동무들의 의견들은 편집부가 잡지 《청년 생활》을 더 훌륭히 편집하는데 큰 도움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잡지 《청년 생활》은 아직도 동무들에게 충분한 만족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집부는 잡지 《청년 생활》을 동무들의 더욱 훌륭한 교양자로, 벗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동무들의 다음과 같은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어떤 글이 제일 재미있었습니까?

2, 어떤 글이 제일 재미없었습니까?

3, 앞으로 어떤 글을 더 많이 실었으면 좋겠습니까?

4. 표지, 그림, 사진에 대한 의견. 기타 여러가지 의견들.

※ 보내 주실 곳 민주 청년사 청년 생활 편집부.